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있지만 좌익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고난당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전하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벌사와 네 손으로 하는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5:10)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36호 2013년 6월 8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토네이도보다 더 강력한 크리스천 지원

CT, 오클라호마 타격 후, 교회공동체의 신속한 구호지원 사역 보도

지난달 20일 강력한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 주 남서부 무어(Moore)의 벌판과 주변 주택가를 휩쓸었다. 800m폭의 강력한 토네이도가 이날 오후 오클라호마시타 주변을 지나면서 최소 51명의 인명을 앗아갔는데, 초등학교 건물 한 곳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곳곳에서 화재도 발생했다. 국립 해양대기청 산하 국가위험기상연구소(NSSL)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풍속을 추산한 결과 EF-5등급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토네이도의 풍속은 시속 320-337km(200-210마일)로 측정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폭이 2km나 났고 40여 분간 27km나 이동하는 가공할 속도를 보였다. 토네이도가 생성에서 소멸까지 뿜어낸 에너지를 기상학자들이 실시간 측정된 결과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8-600배에 달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토네이도로 무어에서는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최소 24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부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토네이도의 경제적 피해규모가 지난 2011년 미주리 주 조플린 시를 강타, 158명의 사망자를 낸 초강력 토네이도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를 즉각 방문해 무어 인근 지역을 연방재난지역으로 선정하고, 구호에서 복구에 이르는 데 각종 지원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이 지역에 가장 먼저 도움과 구호의 손길은 바로 교회공동체들이다(How the 'Faith-Based FEMA' Are Helping Moore Move On: As President Obama pledges recovery, Christians volunteers aid Oklahoma tornado victims based on what each denominations does best).

엄청난 자연 재난은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지만 교회와 크리스천의 도움은 즉각 희망과 재기의 희망을 품게 한다.

EF-5 등급인 엄청난 토네이도 앞에 당장 오클라호마 무어 지역의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졌다. 그러나 정부나 관계기관들의 도움보다는 먼저 해당 재난 지역에 펼친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의 손길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파악하고 있다.

먼저 오클라호마지역의 연합감리교회 헤이스(Robert E. Hayes Jr.) 감독은 다른 지역의 감독들과 연합감리교인들이 이번 토네이도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이 지역은 비극이나 토네이도의 피해에 그리 낯선 곳이 아니다.

"1990년대 초반의 폭탄테러 사건도 있었고, 똑같은 경로로 지나간 여러 번의 토네이도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비극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을 얻으려는 새로운 회복력과 해결점, 그리고 지속적인 희망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헤이스 감독은 재난이후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구호 사역을 펼쳐야 하는 지



교회공동체는 구호지원에 가장 적극적이다. 사진은 지난달 허리케인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오클라호마.

그 핵심을 전한다.

따라서 텍사스 덴버시에서 430마일을 달려 온 그리스도의교회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식사에는 이러한 희망과 여유까지도 배어 있다. 이들은 오렌지 티셔츠에 "재난구조"라는 선명한 글씨가 쓰여진 옷을 입고 교인들이 심심일만 모아온 생필품들이나 구호품을 따뜻한 한 끼 식사와 함께 전해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전격적인 재난 지원과 재건 사업이 착수되고 있지만 이미 재난현장에는 소위 "신앙에 근거한 연방재난구호사역" 즉 메타라이트 재난사역팀에서부터 사마리아인의 지갑, 장로교단 재난 지원카운셀링팀이 활발하게 지원

과 함께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야 연방 정부 기관 관계자들은, 이러한 비정부 기관 바로 교회공동체의 도움이 이번 구호와 재건 사업에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벌써 교회나 인도주의적 단체 회원들 4,200명이 직접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자원봉사사역에 등록했을 정도이다. 이렇게 교회공동체의 도움은 항상 정부 기관보다 한 발 앞 서고 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지 1시간 30분 만에, 오클라호마남침례교회 재난구조팀장 샘 포터(Sam Porter)는 무어 제일침례교회에 도착했다. (3면으로 계속)

미해결 부부문제는 나누지 말라!

소그룹닷컴, 소그룹 리더의 3가지 금기사항 소개

건강한 소그룹은 항상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소그룹 리더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그룹 내 투명성에서 찾는다. 그룹원들은 언제나 소그룹 모임에서 자신의 문제와 갈등과 약점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더와 그룹원들 모두가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리더로서 그룹 내에서 투명성의 본을 보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플로리다에서 가정 사역을 담당하는 위드너 목사(Seth Widner, The Journey Church)는 다음의 세 가지는 절대 그룹 내에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한다.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면 소그룹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1.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부문제는 나누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나 가끔 부부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다. 그런데 가끔 기존 리더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부문제를 그룹원들과 나눈다. 그것을 듣고 나면 그룹원들 역시 의견이 나누어지기 쉽다. 이로 인해 그룹 내에서 편이 나누어지고 리더의 부부 문제가 그룹의 분열을 야기 시킨다. 리더는 이러한 부부문제를 그룹 내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룹 밖에서 도움을 찾는 것이 좋다.

분열 가능한 불만사항은 언급 금기 개인 비밀은 지켜주고 기도해줘야

모든 갈등이 해결된 후에는 그룹 내에서 그 문제를 나누어도 된다. 그러면 그룹원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관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2. 분열을 일으킬만한 불만사항을 나누어서는 안된다!

소그룹 리더로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교리와 제자훈련의 비전 등은 동의하지만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과 방법들은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것 때문에 리더들은 불만을 품고 낙담하기도 한다. 그러나 리더들은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룹원들에게 그 문제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지도자들을 만나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특정한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그룹 내에서 나누게 되면 그것은 일종의 험담이 되는 것이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그룹 내에서 나누기보다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길 원하신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킬만한 모든 가능성을 피해야만 한다.

3. 그룹원 개인의 비밀을 나누어서는 안된다!

그룹원들은 리더가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에 관해 비밀을 보장해 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

(2면으로 계속)



2면

지구촌 청소년 헌수서 알고 선교에 임한다!



3면

영향력 있는 리더는 '섬기는 리더'



7면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연인 김만형 목사(진구교회)



16면

총회장 인터뷰 호성기 목사(KPCA), 엄영민 목사(KAPC)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3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학			
부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학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 부 처 : 본교 사무실(퀀츠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3년 9월 6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3년 9월 7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3년 9월 9일(월) - 11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 감 / 교 부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시론

객관적 현실과 심리적 현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매일의 현실을 두 종류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객관적 현실과 심리적 현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현실은 현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심리적 현실은 자신의 생각을 통해 굴절된 현실을 현실이라고 왜곡되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을 말한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객관적 현실을 산다고 착각하지만 의외로 심리적 현실을 사는 경우가 많다. 종종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갈등 역시 심

리적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번 싫은 사람은 무엇을 해도 다 비뚤어진 마음으로 본다.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을 다 거부하고 비난하게 된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 아주 오래 전 이야기이지만 두 여 집사 간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사실에 근거하여 비난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니가 무엇을 해도 비판하게 되었다. 심지어 그 사이에 끼어있는 목사가 보다 못해 각각 만나서 상대방의 입장을 설명해주는 자제하라고 일러도 못 알아듣는 상황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왜 목사가 상대방만 변호하고 편들어 주냐고 목사를 비난하기까지 하였다. 결국은 둘 다 교회를 떠났다. 심리적 현실은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실이다. 굴절된 자아를 통해 생각하다보니 모든 게 불편하다. 대인관계가 불안하고 두렵다. 스스로 생각이 쪼그라들고 위축당한다. 한편으로는 쪼그라들지 않기 위해 과장을 하거나 포장한다. 그래서 과도하게 행동하는 면이 생기고 허세에 빠지기 쉽다. 돌아보니 나 역시 오랫동안 심리적 현실을 살아왔다. 그래서 열등감과 패배의식으로 괴로워했고 별 생각 없이 말한 아내의 한 마디에 분노로 잠을 못 이루기도 하였고, 성도의 사려 깊지 못한 말 한 마디로 인해 사역에 대해 절망하고 모든 것을 핑계쳐 버리고 싶어 했던 적도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객관적으로 현실을 보는 눈이 생겼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시편 144편을 묵상하다가 그 이유를 찾았다.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나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답이었다(3,4절). 다윗은 객관적 현실을 산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사무엘하 7장에서 성전 건축을 거절당하고도 행복해 했다. 평생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주시고 생각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성소에 들어가 "앉아서" 고백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인가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18절). 객관적 현실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올바르게 상황을 판단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 반면 사울은 철저한 심리적 현실에 머물렀다. 사울에게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끌리앗과 온갖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준 충성스런 신하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생각 없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삼상18:7)라고 노래 불렀을 때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다윗을 원수로 대하기 시작했다.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말이다!! 그것은 곧 사울의 불행으로 연결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는 두 번이나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었지만 그의 비뚤어진 마음을 올바르게 감리할 수 없었다. 이미 심리적 현실에 중독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막을 내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자는 심리적 현실을 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남들의 평가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혹은 이런저런 사람들의 평가로 작은 문제를 산더미처럼 키우지 않는다. 남들이 뭐라든 나는 나일뿐이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주시는 것을 오늘도 깨닫기에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목회현장에서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현실을 파악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더욱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내 앞에 주어진 현실과 내게 맡기신 영혼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고 섬기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난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왜곡되지 않아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역자야 미래가 있다.

지구촌 청소년 현주소 알고 선교에 임한다!

미 인구국, 2013 세계 청소년 현황 보고

미인구조회국(U.S. Population Reference Bureau)은 최근 '2013년 세계 청소년 현황 통계'(The World's Youth 2013 Data Sheet)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개발도상국에서 중등학교(secondary school)에 진학해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지식은 물론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반면 실업상태에 빠져 있는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은 흡연, 조혼(early marriage),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성생활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아래의 사항은 이번 보고서에서 드러난 세계 10-24세 사이의 청소년에 대한 여러 통계와 사실들이다.

청소년 임신과 출산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18세가 되기 전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있는데, 특히 여전히 조혼관습이 이어지고 있는 농촌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조혼을 한 여성들 대부분은 결혼 직후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짐바브웨, 세네갈, 콜롬비아 농촌 지역 여성의 20% 이상이 18세 이전에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유한 가정보다는 가난한 가정 특히 극빈층의 여성 자녀들에

성의 절반 정도가 18세 전에 결혼을 했으며, 이러한 여성들은 비교적 이른 나이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교육이나 고용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조혼이 비교적 성행하지 않는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에서도 여성의 20% 정도가 18세 전에 결혼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동부와 서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와 같은 극빈 지역에서는 여성의 10% 이상이 15세 이전에 결혼을 하고 있다.

청소년 출산율



비율이 10% 정도인 반면 선진국에서는 그 비율이 2% 이하이다.

중등학교 진학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초등교육 상황이 놀랍게 개선돼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중등학교

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낮다.

비고용, 비교육, 비훈련 청소년(NEET)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직업도 없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개발도상국 중등학교 청소년 수 역사상 최다 수준
흡연, 조혼, 임신/출산, 불안정 성생활 등 위험 노출

에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짐바브웨, 세네갈, 콜롬비아, 페루의 소득 최하 20%의 가정의 여성 자녀의 25% 이상이 18세 전에 임신을 한다. 특히 페루의 수준은 선진국의 거의 6배에 해당한다.

조혼현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결혼이라고 정의되는 '미성년 결혼'(Child Marriage)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악습은 소녀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건강과 행복도 위협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서부에서는 20-24세 사이의 여

'청소년 출산율'(adolescent fertility rate)은 15-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 당 출산한 아기의 수로 정의되는데, 세계적으로 청소년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지만,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임신이 여전히 흔하다. 이른 나이의 임신은 여성의 건강과 신체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청소년의 출산에 의한 사망과 질병 위험은 20대 여성보다 높으며, 이른 나이의 임신은 종종 교육, 훈련, 세계 향상에 대한 기회를 박탈한다. 개발도상국의 청소년 임신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인데, 매년 개발도상국의 청소년 여성 중 출산하는 이들의

로의 진학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중등학교 진학(Progression to secondary school)은 초등교육을 이수한 아동이 중등학교에서 첫 해를 보낼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척도이다. 필리핀에서는 거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반면 세네갈과 레소토(Lesotho)에서는 초등학생의 75% 이하가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는데, 여학생의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낮다.

그러나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다. 도미니카 공화국과 모잠비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등학교

Training) 청소년들에 대한 염려가 높다.

현재 직장은 없지만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은 미래의 고용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니트족은 고용도 교육도 고용을 위한 훈련도 받지 않는 이들이다. 교육을 받지 않거나 직업 전선에 있지 않은 젊은이들은 더 나은 고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할 수 없다.

유용한 통계가 있는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 남성보다 여성 '니트족'이 많다. 특히 니제르, 파키스탄에서는 여성 젊은이 3명 중 1명이 니트족이다.

(1면에서 계속)

그래서 그룹 전체에게 아직 나누기 어려운 기도제목은 리더에게는 나누기도 한다. 또는 비밀이 보장될 것을 믿고 리더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리더는 그 그룹원이 그룹 안에서 그 문제를 나눌 수 있을 때까지 비밀을 지키고 기도해야 한다. 나중에 그 그룹원이 준비가 돼 그룹 전체에게 자신의 일을 나누게 되면

그룹 내에서 힘을 얻을 뿐더러 리더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

리더는 항상 그룹을 투명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부적절한 것들을 그룹원들과 나누어서는 안된다. 언제나 무엇이든 소그룹에서 나누기에 앞서 나누어도 무방한 내용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Summer Special
Global Leadership Seminar

June 13, 2013, 9:00 am- 5:00 pm, June 14, 9:00 am- 12:00 pm



Rev. Shemchenko
Russia Christian Leader
Russia Christianity today and Tomorrow
"러시아 기독교의 오늘과 미래"



Dr. Bob Fu
President of China Aid, IFPP Director
"Christianity in China and Leadership"
중국기독교 리더
"중국의 기독교 리더십"



Bill Federer IEC President,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American Minute
"Christianity in America and Leadership"
"미국의 기독교리더십"



Dr. Kum Y. Kim,
President of Midwest Alumni
"Korean Christianity Today and Tomorrow"
Midwest University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의 미래"



Dr. James Song,
President of Midwest University
"Global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총장
"글로벌리더십 개발"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리더십 박사과정 입학문의 손동원 교수 covenant@unite1.co.kr
세계 각국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을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Seminar

Prof. Sung Joon Kim
(St. Louis University Ph.D Candidate)
Blended Courses - CC 502, CC523
ICA Certificate
June 10-14, 2013



27th Anniversary
Graduation Ceremony
June 14, 2013. 3:00 pm



27th Anniversary
Midwest Summer Concert
June 14, 2013. 7:00 pm

Register Now! e-mail to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usa@midwest.edu
(636) 327-4645, St. Louis, Missouri

영향력 있는 리더는 ‘섬기는 리더’

리더십저널, 서번트 리더로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들 소개

21세기 초에 들어 우리는 전통적이고 독재적이며 위계적인 리더십의 양식보다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서번트 리더십(Servant-leadership)이다. 서번트와 리더는 상반된 단어다. 상반된 두 단어가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결합되면 역설이 발생하게 된다. 서번트와 리더도 그렇게 결합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역설적인 개념을 낳았다. 다음 내용들을 통해 서번트 리더로 발전하는데 더 없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특징들을 살펴본다.

서번트 리더의 특징들을 살펴보기 전에 경영학이나 리더십에서 서번트 리더라는 아이디어가 창출되기 된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좋다. 서번트 리더십의 기본 아이디어는 헤르만 헤세(Herman Hesse)의 작품인 ‘동방으로의 여행’(Journey to the East)으로부터 얻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소설은 여러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그들의 허드렛일을 하는 레오(Leo)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레오는 특이한 존재였다. 여행 중에 모든 허드렛일을 맡아서 하던 레오가 사라지기 전까지 모든 일은 잘 돼갔지만 그가 사라지자 일행은 혼돈에 빠지고 흩어져서 결국 여행은 중단됐다. 그들은 충직한 심부름꾼이었던 레오 없이는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서번트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하려고 애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고유한 재능과 정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서번트 리더는 동료들의 선의를 믿으며, 그들을 인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

3. 치유

어려운 상황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는 능력은 변형하고 완성하는 강력한 힘이다. 서번트 리더는 사람들과 기관들이 온전해지도록 도움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인정한다.

4. 설득

서번트 리더의 또 다른 특징은 조직 내에서 결정을 내릴 때 직권이 아니라 설득에 의지한다는 점이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8. 사람들의 성장을 위한 헌신

서번트 리더는 사람들이 노동자로서 기여하는 바를 넘어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믿는다. 그래서 조직에 소속된 모든 개인들의 인간적, 직업적, 정신적 성장을 위해 헌신한다.

서번트 리더들이 대중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 공동체와 관련된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 무한 책임을 보여줌으로써 그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위의 9가지 것들로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을 총망라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은 서번트 리더십 개념의 초대와 도전에 응

“경청, 공감, 치유, 설득, 자기인식, 직관적인 정신과

원대한 꿈꾸는 능력, 성장을 위한 헌신, 공동체 형성” 필요

레오가 없어진 뒤에야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은 것이다. 그 일행 중 한 사람은 몇 년을 찾아 헤맨 끝에 레오를 만나서 여행을 후원한 교단으로 함께 가게 됐다. 거기서 그는 그저 심부름꾼으로만 알았던 레오가 그 교단의 책임자인 동시에 정신적 지도자이며 훌륭한 리더라는 것을 알게 됐다. 레오는 서번트 리더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레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일 뿐이다. 이제 서번트 리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특징들을 살펴보자:

서번트 리더는 동의를 강제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키려고 노력한다. 서번트 리더는 여러 집단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유능하다.

5. 인식

전체적인 인식, 특히 자기인식은 서번트 리더를 강하게 만든다. 인식은 윤리와 가치가 결부된 사안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상황을 보다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6. 선견

어떤 상황에서 비롯될 만한 결과를 선견하는 능력을 통해 서번트 리더는 과거의 교훈과 오늘날의 현실, 그리고 의사결정이 미래에 가져올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선견은 직관적인 정신에서 비롯된다.

7. 개념화

서번트 리더는 원대한 꿈을 꾸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한다. 이는 곧 일상의 경영 현실을 넘어서서 생각

9. 공동체 형성

서번트 리더는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그린리프는 이렇게 말했다. “공동체를 재건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효한 삶의 형태가 되도록 만드는 데는, 충분한 수의 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힘과 약속을 잘 보여준다.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먼저 서번트 리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 교회나 오늘을 이끄는 힘을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토네이도보다 더 강력한 크리스천 지원

(1면에서 계속)

그는 이미 1999년 오클라호마 토네이도 현장, 9.11뉴욕센터, 카트리나 재난 현장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손과 발이 돼주었다.

이러한 남침례교의 즉각적인 훈련 자원봉사자들의 배치와 식사 제공(하루에 3만 명 분량) 그리고 폐허 잔해 청소 등등을 두고 NBC 뉴스는 “교회들의 도움이 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다.

현재 남침례교회는 미전역 50개

교단 재난구조팀이나 인도주의적 단체들이 모여 만든 ‘국가재난대처팀(the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 National VOAD)’에 소속되어,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재난 지역에서 독특한 사역을 펼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연방재난대처국(FEMA)은 행정적인 문제나 지원 기관과 기금 확보 이유 등으로 즉각적인 지원과 구조 사업이 느장대응을 한다는 사

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교단들이 속한 내셔널 VOAD에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만이 우선순위에 있으며 어떠한 일을 보고하거나 허락받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가는 것을 최우선 사역으로 두고 있다.

내셔널 VOAD는 지난 1969년 걸프해안에 닥쳐왔던 5등급 토네이도(Hurricane Camille) 이후에 결성돼 정부 기관이나 교회공동체 그리고 인도주의적 단체들이 각각 독립적인 사역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토네이도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크기에, 현장에서 복구를 도울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

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지원 및 연결 단체(Disaster Assistance CoC)는 벌써 15,000여 개의 이메일들과 5,000개의 페이스북 북들을 사용해 미전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믿는 크리스천들의 자원봉사자들을 대대적으로 모으고 있는 중이다.

결론으로, 어떤 재난 현장에서도 가장 먼저 구호와 지원의 손길을 보이는 것은 바로 교회공동체들이다. 바로 상처 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클라호마 무어 지역으로 달려가고 있다.

사 고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USB(MP3) 발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본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장영춘 목사)이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성지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15편 전체가 USB(MP3) 메모리로 제작됐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0명의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 바른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바른 신학적 접근과 바른 신앙회복에 대한 도전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강의하며, 특히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목회/선교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목회/선교 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3강의와 2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한 강의 당 1시간 15분 씩 주어져 총 소요시간 16시간. 특히 기존의 CD가 아닌 명함 크기의 USB로 제작돼 지갑 속 휴대가 가능케 함으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가격은 30달러(국내우송료 포함).

강사는 김성길, 김중준, 장영춘, 권태진, 황의영, 이영섭, 김기원, 김승천, 이만형, 김해천 목사로 강의의 순서대로 수록돼 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미국내 우송료 포함)



담임목사 청빙

아르헨티나 중앙교회는 (Iglesia Presbiteriana Coreana Chung Ang) 1972년 8월 6일에 설립된 교회로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중남미 노회에 속되어 있으며 합동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하며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 목회 경력 5년이상 시무하시고 만 40세에서 50세 되신 분으로 청빙합니다.

(1) 제출서류

1. 사진을 포함한 이력서
2. 신앙고백서(A4 용지 2매 이상)
3. 개인 및 가족 소개서
4. 목회 계획서
5. 학위 증명서
6. 목사 안수 증명서
7. 최근 본인설교 2편(인터넷 동영상 1편)
8. 현재 사역교회의 후보 1개월분
9. 현재 사역교회 홈페이지 주소
10. 현재 시무목사 추천서 2명이상 (추천인 서명날인 및 밀봉)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전형방법

1. 1차 서류심사
 2. 2차 개별인터뷰
- * 서류심사 통과자만 개별통지후 인터뷰

(3) 제출처

1. Av. Castañares 1435 . Cp 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Iglesia Presbiteriana Coreana Chung Ang
 2. E-mail: chungang.ar@gmail.com
 3. Facebook.com/chungang.ar
- Tel: 0054-11-4921-9395/0509/8860

(4) 제출방법

1. 우편이나 E-mail.
2. 기한: 주후 2013년 7월 31일까지 (2013년 7월 31일까지 발송인 찍힌것 유효)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아르헨티나 중앙교회 청빙위원회

* 정정: 지난 호 청빙광고에 삽입된 사진은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아르헨티나 중앙교회와 상관없이 본지 디자인실에서 실수로 잘못 삽입하였음을 밝히며 사과드립니다.

담임목사 청빙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인필라델피아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본 교회는 39년 된 교회로 자체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개척하는 심정으로 사역해 주실 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자 격** 활동/통합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 하신분

● **제출서류** 이력서, 목회소견서, 가족소개서, 최근 6개월 내 설교 CD, 대학 및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 **제출 마감** 6월 15일
● **제 출 처** 31 Grove Ave, Flourtown PA 19031 The Korean Philadelphia Church
● **전 화** 267 243 7779(민병운장로) / 215-836 -9886

한인필라델피아교회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미국 수사기관 FBI에서 증인의 설명을 듣고 몽타주(montage)를 그리는 스케치 전문가를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실험한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7명의 여성을 선정하고, 각각 스케치 전문가에게 자신들이 자신의 얼굴을 직접 말로 설명하게 하여 그려진 초상화와 그 여성들을 본 제3의 여성이 스케치 전문가에게 설명하여 그려진 그 여성들의 초상화를 대조한 결과는 뜻밖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묘사하여 그려진 그림이 남이 묘사하여 그려진 그림보다 훨씬 못생긴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 밝혀진 것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실제로

못생겼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를 뒤집어 해석한다면, 여성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되는데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

하시나이까"(시8:4)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감사 찬송을 드립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예뻐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소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흑인 노예 해방이 선언된 이후 흑백차별이 여전한 시절에, 학교에서 백인 친구들에게 '쓸모없는 검둥이'라는 조롱을 받고 울면

서 돌아온 아들에게 흑인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이야, 엄마가 너를 쓸모없는 검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너는 쓸모없는 검둥이가 아니다. 그리고 엄마는 너를 쓸모없는 검둥이라고 영원히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쓸모없는 자로 이야기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쓸모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은 나를 쓸모없는 자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푸 / 른 / 초 / 장

정관일 목사
(캐나다 가든장로교회)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솟아오르고 있나요? 아니면 땅에 기어 다니고 있나요?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땅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날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범상치 않은 놀라운 일을 여러분은 누려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은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특별히 부름 받은 종이나 사역자들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5:20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대사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대사는 최고 서열의 외교관으로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파견된 대표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신 높은 서열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믿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고 왔습니까?

여러분의 본향의 진리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하늘나라 대

한 사람이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여러분은 절대로 자신을 나타내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왕중의 왕이신 예수만을 철저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병자를 향해서, 귀신들린 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명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12에서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신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일으킬 대사입니다. 세계를 능히 바꿀 수도 있는 위대한 성령의 능력을 가진 하늘의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혹시 학생입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학생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업시간에 하나님의 대사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가 계신 것입니다. 혹시 직장인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사명, 능력을 맡기신 여러분을 그 삶의 자리에서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이며, 하늘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 서열의 외교관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위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분을 섬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신 그 장소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데는 여러분을 가장 적합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 중의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Identity),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그대로 조금은 인식하고 있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까지 하시면서 우리 속량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첫째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변화와 정체성 확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드라마틱한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할 정도로 큰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세계선교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였습니

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기 전, 변화되지 못했던 그의 과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 자체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 아니아에게 가서 눈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함께 새로운 정체성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시며 그가 알지 못하던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나누도록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자기의 정체성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후5: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변화된 후 핍박자, 이기주의자, 율법주의자, 교만한 자의 정체성을 내던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품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낡은 모

든 죄악된 옛 과거는 다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고 이제 은혜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비가 누에고치에서 빠져나와서까지도 날개를 달고 애벌레처럼 땅을 기어 다닌다는 것을 한 번 상상해보십시오. 이 모습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은 광경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도록 구원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하늘을 날도록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삶을 따라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누에고치를 빠져나온 나방이 전처럼 땅을 기어 다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 이중적 기준

가진 여러분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권리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나 사역자들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직분이나 신분이나 귀천 등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케 하는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헬라어 본문에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된다면 그 뜻은 "돌이키다, 회복시키다"(하나님께로)의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돕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승로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케 하는 메시지를 부탁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고후

사로서 보내심을 받았습시다. 이 땅이 여러분의 고향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여러분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낸 그 왕국에서 그 나라 왕을 대신하여 나타내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능력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위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분을 섬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신 그 장소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데는 여러분을 가장 적합한



믿고 맡길수 있는 [하나님의 학교] N.J. United Christian Academy



NJUCA 교육의 특징

- 기독교 교육 이념에 기초한 **지성(IQ), 감성(EQ), 영성(SQ)** 교육
- 헌신적인 교사들에 의한 친밀한 학생관리 및 상담
- 특별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한 이타적인 인재 육성
- SAT, TOEFL, 수업을 통한 명문대 진학 준비
- 한식과 중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기숙사 환경



2013-2014년 신입, 편입생 모집중

- 대상: 6th ~ 12th
- 인원: 각 학년별 약간 명
- 전형: 서류 및 인터뷰
- 개강: 2013년 9월 5일
- 특징: 국제 유학생에게 **정식 I-20발급**

개교 10주년을 앞두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훌륭한 크리스찬 미래 리더들을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6학년 12학년)

www.njuca.org

문의 전화

TEL. (609) 954-2900
73 Holmes Mill Rd,
Cream Ridge, NJ 08514
School: (609) 738-2121
Korean: (609) 758-1177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유럽이 또 다시 무슬림과의 갈등으로 소용돌이 속에 있다. 지난 22일 영국 런던의 도심에서 백주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2명의 흑인 남자가 지나가는 군인을 살해했다. 그들은 도망하지도 않고 무슬림인 것을 밝히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한 영국의 정책을 비난했다. 영국정부는 그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긴급대회의를 열었다. 우파들의 이슬람교도들을 규탄하는 반대데모가 일어났다.

이것은 유럽각국에서 경계하는 무슬림들과 갈등의 대표적인 표지사건과 같다. 지난 19일에 이민 개방정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이민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폭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수백명의 이슬람교 이민자들이다. 비록 일부가 체포되었지만 폭동은 1주일 이상 확산되고 있

고 한다. 성직자수도 급격히 줄고 있다. 스위스에는 사제가 없는 성당이 절반에 달한다. 성직자와 목회 지원자의 감소로 심각한 지도력의 부족현상으로 교회가 더 고통당한다.

다른 요소는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유럽으로 이민오는 것이다. 퓨포럼이 2009년 10월에 발표한 세계무슬림인구지도 Mapping the Global Muslim Population에 따르면 당시 이슬람 인구는 15억7천만 명으로서 세계 68억 인구의 23%를 차지했다. BBC도 이 발표를 충격적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세기 동안 무슬림이 무려 500%나 성장했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기독교가 쇠퇴되고 있는 유럽에서 이슬람교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30년 동안 유럽의 이슬람교 인구성장률은 무려 300%에 달한다.

은 출산율로 이슬람이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4백만의 이슬람교도가 살고 있는 독일의 경우도 40년 후인 2050년에 이슬람교도가 국민의 다수가 되고 70년 후에 이슬람 국가가 된다는 예상도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신생아의 절반이 이슬람이라고 한다. 15년 내에 그들이 네덜란드 인구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런 이슬람인구의 팽창에 대한 이론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Philip Jenkins 교수는 2100까지 이슬람이 유럽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주변의 이슬람 나라들의 추세를 보면 출산증가율이 둔화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분명하다. 이슬람교도들이 유럽 이슬람화의 거점으로 삼은 영국은 2009년 1월 30일 보도된 더 타임스의 기사를 보면 영국의 이슬람교 인구는 지난 4년 만에 50만이 증가하여 현재 240만으로 성장했다. 영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영국의 기독교인구는 2백만 이상이 감소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이 세계를 압도할 것이다"고 공공연하게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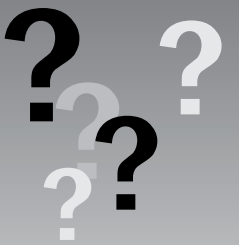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가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유럽교회의 약화는 세속화와 이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교회는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켰지만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 이 사실을 무시하면 이단들이 난무하게 된다. 이것이 현재 유럽교회가 처한 상황이다.

유럽의 젊은이들은 이슬람을 보고 세상을 거슬러간다고 비웃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마음의 허전함을 메울 새로운 권위를 찾아 해매고 있다. 그러다가 순교를 강요하는 이슬람의 모습, 규율을 중시하는 외면적인 삶의 방식을 바라보면 그 안에 무슨 신비한 것이나 있지 않는가 하고 기웃거리고 있다. 권위에 대한 갈망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순복음 계열이거나 은사중심운동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회의 쇠퇴와 이슬람의 흥망에는 성경의 권위의 문제가 배겨되어 있다. 세속화된 교회는 말씀의 권위를 이성으로 약화시켰고 세속화된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버린 권위를 이슬람이 가진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미국도 한때 자유주의의 거센 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한 청년을 사귀어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을 했습니다. 이제 5개월 후에는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몇 개월 전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이제 재미를 느끼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는 제 약혼자는 신앙심이 없고 오히려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교회에 같이 나가자고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 지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스 리

A: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다른 것은 사실 이것에 비하면 작은 일입니다. 자매님이 주님 모르고 살다가 늦게라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복된 일입니다. 문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자와의 관계입니다. 현재의 약혼자는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사귀어 결혼을 약속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고 신앙을 얻게 된 자매님은 약혼자가 같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실 정도로 전도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약혼자도 예수님을 믿어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

믿지 않는 약혼자 파혼불사하고서라도 신앙 심어줘야

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약혼했다고 그냥 결혼한다면 매우 위험한 결혼이 될 것이고 자매님의 결혼의 행복은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인생의 약세서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 자산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 자매님은 이제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이므로 과거와는 완전히 인생관, 가치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약혼자는 현재 아직도 불신 상태, 육적인 상태에 있으며 현재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약혼자를 전도하여 교회로 데리고 나가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 고후6:14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 하리요" 그리고 신명기 22:10-11절을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거러하여 같이 말며 양털과 베실로 섞어 짖을 일치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소와 나귀를 함께 거러하여 농사하면 소는 천천히 나귀는 빨리가게 됨으로서 뺨뺨돌면서 전혀 밭을 갈지 못합니다. 양털과 베실을 섞어 짜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찢어집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기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결혼하고 나중에 믿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중에 결혼후 신앙문제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약혼자와 결혼하려면 반드시 약혼자를 결혼 전에 예수 믿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 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결혼주례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나 불행히도 약혼자가 기독교 신앙을 계속 거부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거절하면 파할 것까지 각오를 하여야 합니다. 아직 약혼단계는 결혼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평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기에 강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앙 가질 것을 약속하고는 그 서약을 파기하는 일이 많으므로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약혼 때는 주님을 몰랐기에 불신자와 교제하고 약혼까지 했으나 이제 예수님을 알고 신앙을 가진 후에는 반드시 약혼자가 같이 신앙을 가지고 믿을 때에 결혼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헤어지는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이슬람 공격아래 있는 유럽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다. 이 사건은 사회통합을 중시하던 스웨덴은 물론 전 유럽에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9백만 명 중에서 이슬람교도가 10-15%나 된다.

유럽에서의 이슬람의 도전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유럽교회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이슬람교가 몰려와도 교회가 든든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The European Spiritual Estimate 자료에 의하면 유럽인구의 72.2%가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4.2%에 불과하다. 교회축색률은 심히 저조하다.

유럽교회는 대부분 기독교가 국교이기에 말씀의 구체적인 생활화보다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난 세기 동안 유럽의 세속화와 교회에 대한 자유주의 물결로 인해서 성도의 숫자가 급속하게 감소했다. 교인의 노령화와 차세대의 부재현상은 전 유럽교회에 걸친 위기상황을 만들었다.

유럽 전역에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한 독일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3만5천개 독일교회 중 3분의1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퓨포럼에 의하면 현재 유럽에는 3천8백만의 이슬람교도가 있는데 이는 이미 유럽인구의 5%에 달하는 것이다. 물론 이중 43%에 해당하는 1천650만은 러시아에 살고 있지만 최근 서유럽에서 이슬람은 이민과 출산, 포교로 계속 성장추세에 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 이미 이슬람교도가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고 있고, 네덜란드 6%, 오스트리아 5%, 독일 4.9%, 스위스 4.3%, 벨기에 4%, 영국 3%로 모두 급성장 추세에 있다. 이슬람의 성장은 특히 유럽의 대도시에서 두드러진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한 지역에서 이슬람교도 정치인들을 만들 수 있고, 그들이 정치 세력화 하면 영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슬람교도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의 증가이다. 최중상 선교사는 "유럽 재복음화의 필요성과 전략"이라는 보고에서 이런 추세 속에서는 20년 후에는 이슬람이 프랑스 인구의 약 25-30%를 차지하게 되고 40년 후에 프랑스가 이슬람 국가가 된다는 전망을 인용했다. 문제는 프랑스에서 볼 수 있듯이 20세 미만 인구의 30%가 이슬람교도이고, 이들의 높

한다. 그들은 정치에도 깊숙이 참여한다. 아프리카에서 보는 것처럼 급진공세와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함으로 이슬람화를 시도한다. 영국에는 무슬림 국회의원이 4명으로 2명은 차관을 겸임하고 있다. 스웨덴도 무스타파라는 이슬람교 청년이 사회민주당의 지도자로 급부상했다가 여론에 밀려 사퇴했다.

20세기 후반 이슬람교도들은 2080년까지 전세계를 이슬람화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들은 우선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해 유럽의 영국과, 아시아의 한국을 그들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그들의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현재 런던은 극단주의 무슬림들의 요충지가 되었고 영국에는 120만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거주한다. 한국에는 2만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확장한다.

유럽교회이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유럽교회의 약화는 선교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유럽교회는 바로 연결된 동유럽권과, 중동과, 아프리카 선교에 영향을 미친다.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유럽교회의 회복을 위한 실천적 방안은 무엇인가? 가장

결에 휩싸였지만 지금의 미국 교회가 다시 성경의 권위를 믿는 성경 중심적인 교회로 회복해간다. 유럽의 교회를 회복하는 비결도 성경중심으로 돌아감이다. 중세의 카톨릭의 철학과 부패로부터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 갈망을 채우고 진정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새롭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국과 유럽을 새롭게 하셨던 부흥운동을 주셔야 한다. 19세기의 웨일즈 부흥운동을 통해서 타락한 유럽을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공물을 구해야 한다.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외침이 기억된다. "제발 유럽을 선교지로 생각해주세요"

1세기 전에 복음을 받았던 한국인들이 전세계로 퍼졌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은 유럽과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라 생각한다. 이 위대한 사명은 유럽과 유럽교회를 위한 중보적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오 주님! 유럽과 유럽의 교회를 공회하소서!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On Campus Courses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A Session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B Session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ydney, Australia

• Aug 26-30(8월 26일-30일)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Korea

• Nov 4-8 (11월 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Los Angeles, CA

• Sept 16-20 (9월 16일-20일)
DI 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Eddie Kim(김익원박사)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회서신

귀로 먹는 보약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너희들이 이해해야 해! 이번이 언니들의 마지막이야. 자 성육이, 정호, 순영이, 정희, 그리고 누구지? 영란이.” 지난 베이징 올림픽 여자 핸드볼 3-4위전에서 한국이 헝가리에 33-28로 이기고 있었을 때 계임종로 1분을 남겨놓은 마지막 타임아웃에서 핸드볼 팀의 임영철 감독이 어린 선수들에게 내린 지시였

습니다. 임 감독은 지난 20년을 나라를 위해 뛰다가 이제 1분 후면이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하는 나이 30을 넘긴 가정주부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남은 1분을 어린 선수들 대신 그들이 코트에서 뛰게 했습니다.

격려(encourage)라는 단어는 안(en)과 용기(courage)의 합성어입

니다. ‘격려’란 안으로 용기를 불어넣는다는 뜻입니다. 내과의사인 조지 아담스는 “격려는 영혼에 주는 산소”라고 말했습니다. 격려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격려는 사랑이고 사랑은 곧 관심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된 관심을 가지면 영혼을 살리는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려란 자

극한다(provoke)는 뜻입니다. 격려는 의욕을 상실한 자가 다시 일어 서도록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욕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히10:24). “선한 말은 꿀 같아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잠16:24).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세요”(살전5:11, 현대어번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이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3:17). 초대 교회의 지도자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는 격려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을 복음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고 실패자가 마가 요한까지도 또 한 번의 찬스

를 주며 격려하여 예수님께 유익한 자로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며 가족끼리 서로 격려의 말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이 담긴 격려로 위로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지혜로운 격려로 자신감을 회복시키며 부모가 공부에 시달리는 자녀를 통찰력이 담긴 격려로 큰 비전을 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 안에는 군중 속에 고독함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외롭게 느낄 때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Thank You! 수고 많았습니다”라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격려해 주세요.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직원들에게도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는 영적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격려를 듣는 귀를 가지고 또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여 영적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여 이 세상을 복음과 착한 행실로 축복하는 축복의 유통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동성결혼은 대세론” 거짓...일리노이주 법안부결

최근 일리노이 주하원에서 동성결혼법이 부결되면서, 소위 정치권에서 일던 ‘동성결혼 합법화 쓰나미’가 한풀 꺾였다. 이전까지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5월 한 달 동안에만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미네소타 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일리노이 주 역시 2년 전 동성커플을 위한 시민결합 제도가 합법화되고, 2013년 2월 벨런타인데이에 상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34대 21로 통과시키면서 차기 동성결혼 합법화 주로 낙점된 상태였기에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일리노이 주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오바마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리노이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직접 공식 지지소견서를 발표했으나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일리노이 주에서 이 법안은 표결까지 가지도 못했다. 이유는 표결에 올라갈 만한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그렉 해리스 의원은 “최선을 다했으나 표결 성립에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한 단체(Civil Rights Agenda)의 관계자도 “안타깝게도 유색 인종들의 지지와 시카고 북부 교외 지역 백인 부유층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합법화를 반대해 온 단체(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는 흑인목회자연합(African American Clergy Coalition)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이 단체는 “동성결혼은 대세라는 거짓말의 싹을 잘라냈다”고 자평했다.

미국인 75% “종교성 강화되면 사회 나아질 것”

미국인 대다수는 미국 사회에서 종교가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느끼면서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종교성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기독교 전통이 뿌리 깊은 나라여서 종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가리킨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최근 미 전역의 성인 1535명



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77%가 “종교가 미국인의 삶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종교의 영향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1950년대 이래로 가장 부정적인 결과다. 종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이 같은 인식은 교회에 자주 출석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 개인의 삶에서 종교가 아무리 중요해도 사회적 차원에서 느끼는 종교의 영향력은 약화되는 추세가 뚜렷한 것이다.

이런 추세에는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동성애와 낙태 옹호론자들이 기세등등해진 세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독교적 가치관에 반하는 이슈들이 공공연히 용인되면서 자연히 기독교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이다. 이전 조사를 보면 미국의 웹트랩전 개입으로 반전여론이 치솟고 히피문화가 훼손된 1969년에도 종교의 영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75%로 매우 높았다. 반면 ‘종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응답이 최고치(71%)를 기록했을 때는 2001년 9·11테러로 미국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시기였다.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초반인 2005년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기인 1980년대 등 사회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을 때 종교의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이번 조사에선 “더 많은 미국인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사회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이란 대답이 75%를 차지했다. 종교의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조사 책임자인 프랭크 뉴포트는 “미국인 대다수가 종교의 영향력이 퇴색한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인 57%, 자연재해 때 하나님에 관심 커져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고 밝혔다. 기독교 전문 여론조사 업체 라이프 웨이리서치는 미국 전역의 성인 104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연재해 발생 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관심이 커지지 않는다”는 답변은 31%, 무응답이 12%였다. “(자연재해처럼) 불공평해 보이는 일로 고통을 당



할 때 하나님에 대해 어떤 감정이 드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된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혼란스러워진다”(25%),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16%), 무응답(15%),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라이프 웨이리서치 대표 에드 스테처는 “재앙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어서 재앙으로 인해 일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일부는 떨어져나간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초강력 토네이도가 오를 라호마 주를 강타한 것과 관련해 실시됐다. 지난달 20일부터 불어닥친 토네이도도 소도시 무어와 오를라호마시티 등지에서 40명이 숨졌다.

미 기독교계에선 토네이도 발생 직후 저명한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가 트위터에 올린 성경 구절 때문에 논란이 벌어졌다. 파이퍼 목사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며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도록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읊이 일어나 걸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라는 욕기 1장 19-20절을 게재했는데 이를 많은 사람이 ‘토네이도는 하나님의 징벌’이란 주장으로 해석했다. 파장이 커지자 파이퍼 목사는 “계제 의도가 왜곡돼 오해를 샀다”며 해당 구절을 삭제했다.

한국 무신론자비율 15%, 세계 상위 5위

무신론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 5위권에 한국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윈-갤럽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57개국 5만1927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종교·무신론 인덱스’를 작성해 29일 발표했다(그림 참조).



이 조사에 따르면 ‘에베레스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은 종교적인 사람인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인가, 확실한 무신론자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9%가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밝혔고 ‘종교적이지 않다’가 23%, ‘확실한 무신론자’가 13%였다. 2005년 조사와 비교하면 스스로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밝힌 비율은 9% 포인트 줄어든 반면, 무신론자 비중은 3%포인트 늘었다.

무신론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중국(47%), 일본(31%), 체코(30%), 프랑스(29%), 한국(15%), 독일(15%), 네덜란드(14%) 순이었다. 한국은 2005년 조사에서 58%였던 종교 인구가 지난해 52%로 6%포인트 줄고 무신론

자 비중이 11%에서 4%포인트 늘었다. 미국은 종교 인구가 73%에서 60%로 감소하고 무신론 인구가 1%에서 5%로 증가했다.

종교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는 가나(96%), 나이지리아(93%), 아르메니아(92%), 피지(92%), 마케도니아(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성이 약해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전체 응답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따져본 결과 최저소득층의 종교 인구 비율은 66%, 최고소득층의 종교 인구 비율은 49%로 두 그룹 사이 격차가 17%포인트에 달했다.

이집트 법원, 미국인 등 NGO 43명에 징역형

이집트 사법당국이 4일 미국의 강한 반발에도 미국인을 포함한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4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장과 독일 외무부는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을 표시하는 등 양국간 외교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집트 카이로형사법원은 이날 자국에서 등록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NGO 활동가 43명 전원에게 징역 1년-5년을 선고했다고 관영 메나통신(MENA) 등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해 2월 첫 재판이 시작된 지 1년4개월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독일과 세르비아, 노르웨이,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의 활동가들이 포함된 이들 피고인 가운데 27명은 징역 5년, 5명은 징역 2년, 나머지 11명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모든 피고인에게는 벌금 1천파운드도 부과됐다.

이날 재판에는 미국인 1명을 포함해 일부만이 출석했으며 나머지는 필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정에 나온 미국인 로버트 베커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상당수 활동가는 이집트 당국이 출국금지를 내리기 전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미국 등 외국으로 떠나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기소된 43명의 활동가는 이집트 정부의 허가 없이 국제기구 지사를 설립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외국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피고인 중 미국인은 16명으로 대부분은 미국으로 이민 떠난 상태다. 레이 라후드 미국 교통장관의 아들 샘 라후드도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을 받기 전 귀국했다. 법원은 또 카이로에 있는 5개의 미국, 독일 NGO 사무실에 대한 영구 폐쇄와 자산 압수를 명령했다.

차세대 리더 장학금 모금 및 수여식

이 시대는 진정한 리더십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젊은 크리스천들이 미국 사회의 각 분야에 들어가서 크리스천 문화를 심어야 할 때입니다. 금번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O.C.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함께, 차세대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그들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장학금으로 후원하고자 합니다. 각 교회와 크리스천업체와 기업에서는 이번 장학금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학생 선발 기준

1. 장학생 대상은 남가주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
2. 신청자격은 11학년년부터 대학 2학년으로 한다.(2013년 9월 기준 / 재학증명서 제출)
3.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으로 한다. (담임목사 추천서 제출)
4. 지난 1년 학교 성적이 GPA 3.5 이상으로 한다. (지난 1년 성적증명서 제출)
5.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출석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교회 주보 제출)
6. 한가정당 1년 수입 3만불 이하 가정을 우선으로 한다. (2012년도 택스보고서-IRS 제출)

참고사항 : 장학생의 비율은 고등학생 20%, 대학생 80%로 한다. 성적과 상관없이 저소득층에게는 20%를 할당하며, 타민족에게는 10%를 배정한다. 비슷한 조건일 경우, 개척교회(미자립교회) 출석자와 가정의 재정 순으로 정한다.

장학생 신청과 보낼 서류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웹사이트(www.theckc.org)에 가서 장학금 신청서를 다운받으신 후 장학금 신청서와 및 위 장학생 선발기준에 나와 있는 서류(5개)를 첨부해서 보내주시시오.

- 접수 기간 : 6월 1일~30일(최종 6월 30일자 우편소인이 찍혀야 함)
- 심사 기간 : 7월 1일~15일
- 수여 식 : 7월 21일(주일) 오후 5시
- 주 최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

장학금 보내실 곳 : CKCSC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문의 : 양경선 목사 (213)255-1725
주소 : office@theckc.org

오펜지카오펜지역은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시오.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문의 : 송규식 목사 714-699-0210
주소 : qsong405@gmail.com

** 장학기금을 보내실 때에는 pay to order 를 CKCSC로 써주시고 O.C. 교협으로 보내실 때는 CKCOC로 써주시시오.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를

주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김만형 목사

(친구들교회)

세계 한인교회를 위한 교회교육 제안 (1)

한국인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한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들어서면서 많은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교회는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세월이 지나고 마려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1. 현장 이해를 통해 교회교육을 분석하라.

1)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상황
저는 1989년도에 시카고에서 약간 북쪽에 위치한 트리티니티 복음주의 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로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다른 유학생과는 다르게 그곳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 중의 하나라고 했던 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의 유교로 해

를 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삶과 한인교회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유학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자라가면서 1세로만 구성되었던 청년부에 1.5세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5세가 잘 어울리는 청년부를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은 그래도 교포교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도 소중히 생각되는 것은 당시 젊음을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신학교로 찾아온 1.5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제가 시카고 주변에 있으면서 경험한 것은 많은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이 활성화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세 신학생들이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인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1.5세 사역자들은 나이상 어른 사역이나, EM(English Ministry)사역에 참여하기보다는 교육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2세 사역자들이 나타나는 때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만난 신학생들은 대부분 1.5세였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각 교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교육부서 사역들이 상당히 향상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왕성한 청소년 부서에

2)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상황

귀국 후 저는 계속해서 매년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0년대 중반 제가 예기치 않았던 사실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목사님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발견한 것인데 교회교육이 위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1.5세 사역자가 없어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지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1.5세 사역자들이 어디 갔느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교육 부서를 담당할 사역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저는 제가 알고 있었던 몇몇의 1.5세 사역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선교사로 나가있거나 아니면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제가 느낀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시들이 지역교회에서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았나? 그들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1세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1세 교회에서 1세 담임목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사역

되었고, 사역자로 계속 남기를 원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지역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세대를 키우는 교육사역은 옛날처럼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다...' 몇몇의 대형교회는 그래도 사역자들을 구할 수 있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쪼들 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건강한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사역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3) 지금의 상황

아마 미주지역에서 한인들과 관계된 청소년은 10년 전에 비해 지금은 엄청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인 교회 안의 어린이, 청소년 사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린이, 청소년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흥미를 갖고 달려들습니까? 싫증이 나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정도는 아닌지요? 교사가 영어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교사들이 많지는 않은가요? 단지 영어만 한다는 것으로 교사를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던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탈했습니까? 한국교회를 이탈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메일: kimanhy@hanmail.net (다음호에 계속)

교회교육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담임목사 못 영적으로 미성숙... 영어만 한다고 청소년사역 못해

자로서 존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단순히 애들이나 돌보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사역자로 일할 의욕이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 무시를 당할 때면 그래 나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대학교수가

칼럼 음악목회 ㉞

복음성가(Gospel Song)의 시작과 발전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교단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중에 심지어 주일예배 중에도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과연 복음성가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할 이유는 복음성가를 열심히 부르면서도 복음성가의 뿌리를 모르고 마치 유행처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는 종교적인 민속음악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이것이 미국 역사에서 특히 감성적인 시기였던 19세기에 일어난 감성적인 세속민요에 대한 종교적 반응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가스펠이란 종교적인 민속음악 또는 대중

음악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 기원은 남북전쟁 후에 미국 시골 남부 지역에서 주로 흑인교회와 흑인공동체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가스펠송은 대부분이 흑인영가(Negro Spirituals)로부터 가져온 것입니다.

흑인영가는 그들의 고향인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민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음악적인 스타일과 패턴은 유럽의 영향을 받은 독특한 리듬과 멜로디를 가진 노래입니다. 음악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흑인영가에서 나타나는 황홀경에 가득찬 그들의 기질은 아프리카 풍습과 명백하게 연관되어있으며

이런 형태의 영가가 내포하고 있는 아프리카적 요소들은 '절규' '영창(chanting)' '발구르기' '리드하는 구성원들의 광적인 동작' 등입니다. 절규와 강한 호소력은 대중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매우 흡사합니다. 또한 어떤 작가들은 모든 영가들은 곧 합법적인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노래내용이 "오, 축복의 땅 가나안아, 나는 그 땅으로 향하리라" 이렇듯 이 이 곡에는 천국을 향한 희망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흑인영가에 뿌리를 둔 가

스펠송은 영가에 비해 내용면에서나 음악적인 면에서 성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영가가 죽은 후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살아있는 동안의 시련을 참고 견딜 것을 노래한다면, 가스펠은 좀 더 즉각적인 것을 노래합니다. 음악적으로도 가스펠은 현대적인 비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곡의 정신은 보다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성가'를 어원적인 의미로 볼 때, '복음'이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며 헬라어로는 '유언장'인 곧 기쁜 소식이라는 뜻의 말이고, 영어로는 가스펠(Gospel)입니다. '가스펠'이란 하나님(God)과 말씀(Spell)의 합성어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가락을 맞추어 부르는 것이 복음성가의 의미입니다.

1870년대 종교부활의 선봉에 선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는 '사회적인 개혁은 도덕적이고도 정신적인 소생의 결과라는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가스펠을 심도록

의도적으로 복음성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들의 음악은 행진곡풍, 유행가 및 사랑의 노래의 형태와 멜로디를 취했습니다. 이것들은 감동적이거나 매우 감성적이었습니다.

생가와 무디의 가스펠이 1세기 동안 백인들의 가스펠 발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감성적인 폭발과 정열을 자제해온 반면, 흑인 가스펠은 자신의 특성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 후로 1940대까지 침례교부흥운동은 끼고 복음성가는 활발하게 발전이 되었는데 특히 가스펠 쿼텟이 유행이었으며 많은 레코딩도 남게 되었고 이것들은 음악적 장르로 보아 꽤 세속적인 블루스 스타일의 복음성가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대중음악과 거의 구별이 없이 사용되어 온 복음성가는 병리적, 심리적, 미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복음송은 감성밖에 대한 기호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많이 사용된 음악을 소재로 곡을 만

들어 그런 지역의 성가대가 없는 주일학교나 캠프집회, 천막부흥집회 같은 모임에서는 당시에 유행하던 음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음송이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성가는 기독교음악에 있어서 미국이 생산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어 있는 복음성가의 사상은 평민들에게 익숙하고 친밀한 유행가나 민요의 곡조 또는 대중음악의 장르를 채택하여 복음적인 가사를 붙여 노래하는 것으로 전래되어왔습니다. 그 이후 대부분의 교회들이 복음성가를 수용함에 있어 공통적인 점은 부흥회나 찬양집회 그리고 전도집회에서 전도를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복음성가의 성격상 바람직한 사용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것은 교회들이 분별없이 주일예배에서 경배찬양이 아닌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 연락처: 714-699-0210



조용기 목사



베데스다 대학교

BETHESDA UNIVERSITY OF CALIFORNIA



1. 4차원 영성 최고 지도자 과정(미국 1기, 한국 12기) (최고 교회지도자 과정)

과정개요

- 1) 교육대상 *기업체회장, 사장, 임원급 이상 *국회의원 및 정부 각 기관 고위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기독교관련 종교 및 선교단체 임원급이상 *교회를 초월한 담임목사, 목회자 *교회 직분자(장로, 권사 외)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교육기간 *2013년 6월18일(화)~20일(목) *7월~8월(2개월 온라인 강의/주 1회씩 6회)
- 3) 과정운영 *강의, 토론, 발표, 친교
- 4) 교육장소 *하워드존슨 호텔 (플러린) 1층 세미나실
- 5) 지 원 서 *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 6) 전형방법 *서류전형
- 7) 4차원영성최고 지도자과정 11기까지 442명 졸업 주대준(KAIST 부총장), 성시영(KBS 아나운서), 김성동(전국회의원), 조대숙(변호사, 전 국회의원), 조성민(한양대교수), 김충현(국회의원), 김정택(SBS예술감독), 이현재(국회의원), 손인준(국회의원), 고승덕(현변호사,전국회의원), 이양호(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동환목사(베데스다대학부총장) 이영훈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당회장), 이태근 목사(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최명우목사(순복음강남교회당회장), 전호운목사(여의도순복음삼복교회) 송영준목사(성산순복음교회당회장) 등
- 8) 기대효과 * 베데스다총동문화 회원 * 4차원영성글로벌포럼 미주본부 정회원가입(총재 조용기목사) * 봉사과 사회참여(영산조용기자선재단과 연계한 사회 구제활동) * 교제와 교류(정기모임 및 Net-Work 형성)한국-미국

2. 여름학기 목회학 박사(D.Min) 집중과정

베데스다 대학교는 1976년 조용기 원로목사님께서 세계를 주도할 기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꿈을 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대학교입니다. 본 대학은 발전을 거듭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부산하의 BPPPE의 인가는 물론 미연방 정부 교육부 USDE 및 고등교육인가 기관인 CHEA산하의 ABHE 및 TRACS의 인가를 받아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정규대학교입니다.

과정개요

- 1) 목회학박사 입학 절차요건 * 인가된 대학원의 목회학 석사학위(M.Div)소유자로서 3년이상 목회를 하신 목회자들의 연장 교육을 위한 목회학 박사과정
- 2) 교육기간 * 오순절 영성의 토대와 성장: 7월22일(월)~26일(금) 담당교수 Dr. Ken Walters * 선교사역과 문화적 참여: 7월29일(월)~8월2일(금) 담당교수 Dr. Alan Mc Mahan (목회학 박사 과정은 집중과정으로 진행되며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 3) 입학지원비(\$35 국내지원자 \$280 해외지원자(-20 발급비포함))

원서교육 및 접수

- 4차원영성최고지도자 과정 및 여름학기 목회학박사 집중과정
- * 베데스다대학교 교무처(730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 * 지원서 마감: 4차원영성최고지도자 과정 6월10일까지, 목회학박사과정 7월5일까지
- * 홈페이지: www.buc.edu
- * 문의: 4차원영성 최고지도자 과정(714)318-9528 목회학박사과정 (714)517-1945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39. 몰라서 믿고 있는 진화

“아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행9:4).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의 고상한(?) 의도는 정당화 되지 못했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혹은 알지 못해서 악을 행했다 해서 그 악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어떤 크리스천의 믿음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교화에 아픔을 주고 하나님께 책망 받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현대 크리스천들이 바로 알지 못해서 믿고 있는 것이 수십억 년의 지구 역사다. 그러나 수십억 년 혹은 시생대-원생대-고생대-중생대-신생대의 역사를 믿으면 실제적인 진화론자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물론 진화론은 창조주 하나님께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

1. 수십억 년과 진화론

터틀리언, 크리스소스톰, 어거스틴 등 초기 기독교인들도 화석은 노아홍수 때 생긴 것으로 믿었다. 당연히 그들에게 지구의 나이는 수천 년이었다. 그러나 1700년대 말부터 지구 나이를 길게 잡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의학을 전공했던 허튼(Hutton)이 1795년에 “지구에 관한 이론”이란 책을 냈는데 대륙이 침강과 융기를 반복했다는 순환적인 주장을 하여 지구나이가 무한히 늘어나는 데 일조를 하였다. 진화론의 요약인 시생대-원생대-고생대-중생대-신생대의 역사로 이루어진 수십억 년의 지질시대표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윌리엄 스미스(1769-1839)다. 그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층의 상대적인 순서와 상대적인 연대를 정하는데(표준)화석을 사용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그래서 표준화석의 순서와 연대를(진화론에 근거하여)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표준화석이 들어 있는 지층의 순서와 상대적인 연대를 결정하였다. 그

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지질시대표는 지층이 기준이 아니라 화석이 기준이 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준이 된 화석의 연대를 측정된 것이 아니라 진화의 믿음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

화석 기준으로 만든 지질시대표는 측정 아닌 진화적 믿음으로 결정 수십억년 인간존재 전 죽음 있어 ‘죽음은 아담범죄와 상관없다’ 주장

수십억 년과 성경의 역사

수십억 년의 지질시대표(좌측)는 측정되었거나 발견된 것이 아니라 진화론의 믿음에 근거한 조작품이다. 또 진화론적인 수십억 년은 성경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복음의 필요성과 방법(아담)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지질시대표는 곧 진화론 자체이지 결코 과학일 수 없다. 진화론이 나오기 전인 1833년에는 변호사였던 찰스 라이엘이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을 발표하였는데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이 책의 핵심은, 지질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동일과정설’인데 허튼이 주장한 반복적인 침강과 융기의 지질 활동이 격변적이지 않고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속도로 아주 천천히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그 영향으로 사람들은 노아홍수의 격변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그 의미를 무시하게 되었으며, 지구의 나이는 수억 년으로 거의 무한히 길어지게 되었다. 그

석이 들어 있지 않은 지층으로 25억년-5억7천만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믿는다. 이 두 시대는 진화론적으로는 아주 긴 기간이지만 지질시대표에서 간단하고 짧게 표시되는 것이 보통인데, 특별히 기록할 내용이 없어 공간만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질시대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5억7천만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불리는 현대(顯生代, 노아홍수 때 형성된 지층들)다. 현대라는 이름은 화석이 나타나는 시대라는 뜻이다. 즉 그 이전 시대에는 화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론 원생대나

시생대에도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데 노아홍수 기간에 그 부분으로 끼어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진화론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생대와 원생대를 통합하여 선캄브리아라고 부르며 화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현대와 구별하고 있다. 현대에 해당하는 지층들은 지구 어느 한 장소에서 순서대로 발견된 것도 아니고 연대측정을 해서 순서를 정한 것도 아니다. 지층 속에 들어 있는 표준화석으로 지층의 순서를 결정했고 그 표준화석들의 순서도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진화의 믿음으로 결정된 것이다.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므로 거의 모든 지층에서 화석의 순서가 진화론의 예상 순서와 반대로 되어 있다(Palaios, v.5 June 1990, pp.227-235, 1990) 수십억 년의 지질시대표는 진화론이 만들어낸 가짜 역사임이 확실하다.

3. 수십억 년은 복음을 부정하고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뺨싸게 쥘 것이 빈손 된 롯

잘된 나무는 뿌리부터 보면 얇다. 그리 살갑게 돌봐주는 삼촌 아브라함인데 소유가 많아져 종들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이제 서로 따로 분가해야겠다고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하라” 우선권을 주니 기다렸다는 듯이 탐욕 세 눈엔 에덴동산처럼 보이는 소돔을 택하여 뒷하니 가버리는 롯입니다. 그런데 롯이 뒤도 안돌아보고 뛰어 들어간 소돔이 과연 천국이었을까요? 천사가 찾아오니 남색하겠다고 온 성내 사람들이 달려들어 사납게 죄를 당당히 행하려는 것을 보아 온갖 성추행을 일삼는 도덕이 무너진 짐승같은 자들로 넘쳐나는 무법천지 소돔입니다. 비록 당장 좋아 보여 달려갔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삼촌 아브라함과 더불어 산 세월이 적지 않습니다. 평생 믿음으로 깔끔하게 사는 자들 곁에 살았는데 아무리 세상물이 좋아 보여 뛰어 들어갔더라도 과연 죄악 넘치는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죄악됨을 얼마나 즐거워 할 수 있었는지? 세상 열락에 얼마 후엔 신물이 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하나님께도 세상에게도 제대로 마음을 두지 못하고 얇다리 걸친 육적인 신자들의 엉거주춤 재미없는 나날입니다. 그래도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실한 이들이 뒤에 버티고 있는 자는 저들의 기도를 생각하시어 그들에게 계속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세상적인 삶에 염증을 내고 결국 구원해주시는 뜻을 보며 믿음이 후퇴하여 세상에서 번민하는 이들을 생각할 때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롯 뒤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중보자를 기억하여 구원해주시려 반방으로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데 소돔같은 세상의 영향으로 가득 차 세상의 미련으로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된 아내나 겨우 소돔에서 빠져 나온 롯이 자손보존의 합리화로 근친상간의 범죄 속으로 두 딸들이 저를 끌어내림을 보며 참으로 육적인 신자들의 깊이 배인 세상의 영향의 독이 얼마나 강하게 놀랐습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아비를 통해 자손을 잇는 비극을 보며 가슴을 찡니다. 믿음으로 훈련받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소중함을 아는 아이들이지만 막상 우리의 2세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타락한 소돔시대를 방불하는 요즘 시대의 흐름인지라 적이 염려되고 간절히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나름대로 믿음대로 타협하지 않고 살며 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기적을 베푸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렇다할지라도 세상의 끄는 힘이 강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2세 아이들이 나 홀로 이 세상에 남겨졌을 때 저들이 자라온 신실한 믿음을 따라 세상사랑, 자기 욕망사랑, 자기기분에 충실한 뜻의 삶의 태도를 단호히 버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아브라함의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늘 물로 기도합니다.

무엇하나 주님의 귀하신 배려가 아니시면 아무리 구원의 손길을 따라 분명히 보여주셔도 잠시 은혜 받을 때일뿐 계속 세상 사랑에 발을 더욱 내미는 뜻의 가족 같을까 마음이 안타까워 눈물로 엎드립니다. 우리의 2세들이 아무쪼록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들이 받은 은혜를 늘 나눠주며 섬기며 배려하는 복된 빛과 소금의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JoyLA.com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32 Set 한정특가판매 (1set 12권)

이끼엔백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1권: 가~납스 2권: 다~롯 3권: 못가~소위 4권: 소위~오브 5권: 오브날~종 6권: 종과~히대결 7권: 편람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성구를 이에 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기념타올 판촉물 신설 자수인쇄 BATH 타올 잉크프린팅 BATH 타올

JoyLA가 **확!** 달라졌습니다

CROSSWAYS! 크로스웨이성경연구교제

- 크로스웨이 1권~5권
- 크로스웨이 사례집
- 크로스웨이 오디오CD
- 크로스웨이 수료증
- 크로스웨이 PPT 슬라이드

미주독점판매

조이기독백화점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기감미주특별연회 석달만에 다시 분열

10월 입법의회에 2개 선교연회로 입법청원키로



기감미주특별연회에서 의장인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회의를 인도하고 있다



OC교협이 주최한 제3회 사모님 블레싱 나이트 행사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남편과 함께 성전건축의 축복받았다”

제3회 사모님 블레싱 나이트 성황

제3회 '사모님 블레싱 나이트' 행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30분 하워드존슨 호텔에서 오펜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식사, 3부 레크리에이션 순서로 진행됐다. 사역에 전념하느라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던 목회자들은 손수 웨이터가 돼 아내들을 위해 음식접대를 했으며, 그동안 묵묵히 내조해온 사모들은 레크리에이션 시간 게임을 통해 그동안 수고로 쌓은 피로를 씻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동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윤덕근 목사(부회장)의 기도, 그리고 민경엽 목사가 “사모의 특권”(대상17: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박용덕 목사(

이사장)가 축도했다.

민경엽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향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 정작 성전건축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사모님들은 남편인 목사님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축복을 받았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이라 말했다.

2부 순서에는 유창렬 목사(나눔동산수양관)가 편지낭독을 했으며, 글로벌국악선교단(지도 혜세드김)과 국제홀리워십선교회(지도 이옥희) 대표원들이 국악찬양과 율동찬양을 선보이며 이날 행사를 빛냈다.

3부 레크리에이션은 송규식 목사(부회장)가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감독선거 문제로 LA와 뉴욕으로 갈라졌다가 지난 2월 하나가 됐던 기감미주특별연회가 석 달 만에 2개 선교연회로 다시 갈라져서 됐다.

“첫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하는 감리교회” 주제로 29일과 30일 양일간 풀러턴 하워드존슨 호텔에서 열린 제21회 미주특별연회는 개회를 위한 화원점명에서부터 총동이 일어나 11시30분 예정이었던 개회 선언이 오후4시가 돼야 이뤄졌다. 의장으로 연회를 인도한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개회선언 전, 연회에 정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회원선정과 감사사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부여 등 선거절차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갔으며 개회선언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회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회 둘째 날, 목사안수식을 마친 오후 3시30분경 5차 회합이 시작되자마자 임승호 목사의 긴급동의와 차철회 목사의 재청, 그리고 중도측인 은희근 목사의 확인으로 시작됐던 시간이 열띤 토론을 벌인 미주특별연회는 ‘두개의 선교연회로 나눠 각자의 연회행정을 펼치되 오는 10월 입법의회에 2개의 미주선교연회 설립을 청원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며 길지 않았던 밀월을 끝냈다.

“결별”을 선택한 후 연회 폐회 이후 모인 대책위원회에서는 오는 10월 입법의회에서 2개의 선교연회 입법청원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각측의 명칭을 ‘미주특별연회 LA’, ‘미주특별연회 NY’으로 부르기로 하고 자율적으로 실행부위원회 등의 행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연회에서는 은퇴찬양예배와 목사안수식을 함께 가졌으며 예정됐던 감사사선거는 무산됐다. (박준호 기자)

제 9회 한인커피브레이크 소그룹컨퍼런스

6월 26-29일, 강사 밴더그라인드 목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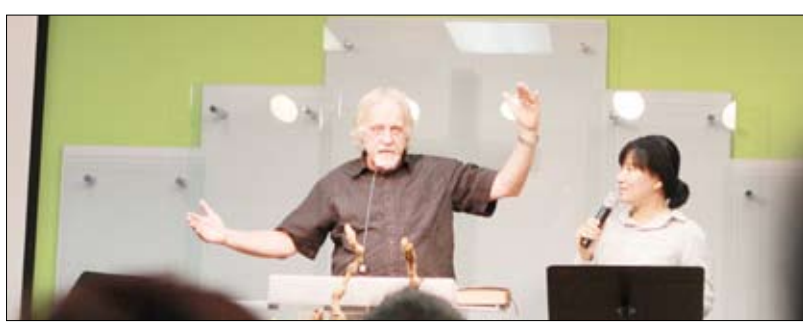
한인커피브레이크 국제본부가 제 9회 한인커피브레이크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미주와 세계 각 곳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모든 커피브레이크 가족들과 소그룹 가족들을 초대한다.

6월 26일(수)부터 29일(토)까지 Hyatt Regency Irvine에서 열리는 이번 커피브레이크 컨퍼런스에서는 시편을 본문으로 커피브레이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학습법인 성경발견학습을 3박4일 동안 갖는다. 이 컨퍼런스에서 말씀중심의 나눔으로 인도되는 소그룹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주제 강의와 특강들을 통해 시편을 더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소그룹사역을 위한 다양한 주제별모임에 참여해 사역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또 온가족 참여를 위해 5세 이상 어린이들부터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EMPO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강사로는 커피브레이크 창시자이신 알빈 밴더그라인드 목사, 뉴저지

지필그림교회 양춘길 목사, 선한침지교회 송병주 목사와 한길교회 노진준 목사, 피닉스한인장로교회 윤원환 목사, 글로벌커피브레이크 대표 백은실 집사, 수잔민 전도사와 백규식 장로 등이 단에 선다. 자세한 것은 웹사이트(www.CoffeeBreakKorea.org)나 (949)322-8963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한인브레이크국제본부)



작은교회에서 열린 이스라엘 미션 컨퍼런스에서 윌리엄 브조라커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인가?

이스라엘미션컨퍼런스, 브조라커 풀러신학교 교수 등 강의

이스라엘미션컨퍼런스가 작은교회(담임 안근성 목사)에서 지난 달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첫날 저녁과 둘째 날 오전 강사로 나선 윌리엄 브조라커 박사(풀러신학교 교수)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미션, 구약”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브조라커 박사는 첫날 저녁 강의에서 “성경66권은 누가를 제외하고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쓰여졌다. 우리의 신앙이 유대인들에게 뿌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살롬, 할렐루야 등 유대언어를 알고 사용한다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설명했다.

브조라커 박사는 “하나님의 선교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이뤄진다. 교회는 이스라엘 없이는 한 몸이

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 역시 교회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민족적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들은 성경과 예수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반유대적이고 민족적인 것을 뛰어넘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예수그리스도를 하는 다리로 하나 되게 해야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둘째 날 오후와 저녁 컨퍼런스는 하난 루카스 목사(하이파베데스다교회/메시안유대인연합회 회장)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미션, 신약”으로, 그리고 주일 오후 컨퍼런스는 유엔투스 페트리스 목사(케릴라트하미안교회, 국가복음협의회위원장)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미션, 다가를 미래” 제목으로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미드웨스트대학교 개교 27주년 행사 다양

글로벌리더십세미나, 졸업식, 음악회 등 지역사회와 함께

미드웨스트대학교(설립자/총장 Dr. James Song)는 개교 27주년을 맞아 6월 10일(월)부터 15일(토)까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세인트루이스 한인사회에 뜻 깊은 만남의 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13일(목)과 14일(금) 양일에 걸쳐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 강사로는 러시아 침례교지도자도 대통령 푸

틴과도 가까운 Schechenko 목사, 미국에서 중국의 지하교회와 연계하며 중국 종교와 인권을 위해 활약하고 있는 차이나에이드 대표 Bob Fu 박사, 국제교육협력기구(IEC) 회장이며 미국 대통령학의 권위자, 저명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American Minute의 Bill Federer 사장, 미드웨스트 총동문회장 김금윤 박사 등이며 각각 기독교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 14일(금) 오후3시부터 제27회 졸업식과 저녁 7시에는 축하 음악의 밤 행사도 예정돼 있다. 이번 졸업식에는 50여명이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 받는다. 이번 행사는 설립27년을 맞이하는 미드웨스트 대학의 흥취민체이로 치러지게 돼 각지에서 많은 동창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미성년자녀 시민권신청 어떻게...

주는사랑체 이민법률센터

‘주는사랑체 이민법률센터’(소장 박창형, 이하 이민법률센터)는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 신청 시 18세 미만 자녀들의 경우 자동적으로 시민권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의 복잡성으로 한인 이민자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이민법률센터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0분 한인타운연장자센터(소장 캐더린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취득에 대해 소개했다.

△2001년 2월 27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인 영주권자 자녀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시민권을 취득해도 자동으로 시민권 자격을 갖는다. △2001년 2월 26일 이전에 태어난 18세 미만 영주권자는 성인이 되기 전 부모 양쪽이 시민권을 취득해야만 자동 시민권 자격을 갖는다. △부모와 이혼했거나 편부모일 경우에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 법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

가 시민권을 취득해야 자동 시민권 자격이 유지된다. △부모가 법적 혼인상태가 아닐 경우 모친의 시민권 취득 여부에 따라 자동 시민권 자격이 결정된다. △한인 시민권자가 외국국적 아이를 입양할 때는 '16세 이전 입양과정을 끝내고 2년 간 자녀와 함께 거주한 경우, 고아가 미국 입국 후 18세 이전 입양절차를 완료할 경우' 자동 시민권 자격이 부여된다.

박창형 소장은 “한국국적 18세 미만 한인 중 90% 이상이 부모의 시민권 신청 수속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 부모들 중 시민권 취득 때 자녀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민권 취득 여부는 ‘출생증명서, 시민권증서, 여권증명서’로 입증할 수 있다. 이민자의 경우 시민권증서와 여권증명서가 발급된다. 자녀 시민권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시민권증서 및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수수료 600달러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여권의 경우 연방우정국

등에 15달러만 내면 비교적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창형 소장은 “시민권취득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여권만 소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민권 미취득 상태에서는 연방정부공무원 응시를 할 수 없고 사회보장국혜택도 제약이 따른다. 대학에서 학자금을 신청할 때 시민권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권과 함께 자녀 시민권증서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소장은 “의붓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들은 시민권취득에 대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영주권만 부여된다. 이 경우는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 스스로 시민권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양부모가 자녀들의 시민권취득을 원할 경우 입양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민권자 목회자의 경우 한국을 비롯 해외로 사역지를 옮길 경우 자녀들을 홈스테이를 하게 하는데, 이럴 경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충족되면 자녀들이 큰 어려움 없이 시민권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에)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한세평화예배: 오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영어)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영)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 5부예배: 오전 2:00 한 세 예 배: 오후 3: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에)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에)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에)예배: 오전 11:00 목요예배: 오전 6:30 E(에) 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남가주주둔한국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회: 오전 5:40(월-토)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 요 예 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월-토)	남가주사망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1:10 (Holywave, 영어예배)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 요 예 배: 저녁 7:30	동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중앙선교교회 담임목사: 박홍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례예배: 오전 9:30 3부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후 6:00(월-토)	다마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침 음 이 예 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새벽 5:30(월-토), 6:00(토)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 회: 오전 5:30(월-토) 평일: 18세부터;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미중앙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병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주 일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2:30(영어) 주일예배 5부: 오후 2:00(청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매일) 금요예배: 오후 7:30	브리자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새생명선교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성 경 공 부: 오후 7: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중, 고교부: 오전 11:00(주일)	세계비전교회 담임목사: 김영빈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영어 1부예배: 오전 9:00 영어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월, 금)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전 4: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금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회: 오전 5:30 교육부부예배: 오전 11:00	얼마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정성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 벽 기 도 회: 새벽 5:30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청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영어)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목요예배: 오후 6:0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목요예배: 오후 8:00(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춘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4:00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 수 요 찬 양 예 배: 오후 7:30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5:30(월-토)	토리엔스주요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장모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동부교계 게시판



KCBN 공개모금방송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 문석진 목사) 공개모금방송이 6월 11일(월)과 12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이번 공개모금은 △양질의 프로그램 자체 제작 증편 △방송품질 향상을 위한 운영비 확보 △보이는 라디오를 위한 인터넷방송과 스마트폰 앱 방송 개설에 따른 방송장비 증설 및 교체 △방송국 에어컨 구입자금 확보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 후원참여 방법은 방송국 방문, 전화참여,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체크 등으로 할 수 있다.

▲문의: (718)463-1700, 1702, 1800, 1801

뉴욕효신장로교회 선교 교육 바자회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 선교와 교육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오는 21일(금)과 22일(토) 이틀간 열린다. 이번 바자회에는 품질 좋고 다양한 의류, 신발, 가전 및 전자제품, 가구, 악기 등의 물품과 각종 음식과 경품행사를 비롯한 외부엔터 업체참여로 큰 규모의 활발한 나눔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번 바자회에 모든 수익금은 자녀교육과 멕시코, 니카라과를 비롯해 아프리카 잠비아 선교지에서 구제와 교육, 선교 활동에 쓰이게 된다.

▲문의: (718)762-5756, 2525

뉴욕원로목사회 6월 월례예배

뉴욕원로목사회(회장 김용해 목사) 6월 월례예배가 오는 13일(목) 오전 11시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47)523-3681

뉴저지교협 호산나전도대회 준비기도모임 4개 한인봉사단체에 후원금 총4천 달러 전달

뉴저지교협(회장 박상천 목사)이 주최하는 뉴저지 호산나전도대회 첫 준비기도모임이 지난 24일 뉴저지소망교회(담임 박상천 목사)에서 열렸다.

서정호 목사(소망교회)의 찬양인도 후 대표기도 장문성 목사(새동산장로교회 담임), 설교 박상천 목사, 합심기도는 박근재 목사(시바노교회 담임) 인도로 △강사의 영육 간 건강 △집회장소 결정 △처음 시작하는 어린이 전도대회와 강사의 영육간 건강 △날씨와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제목으로 진행됐다.

뉴저지교협은 2회 준비기도모임은 지난 3일 두 번째 준비기도모임을 가졌으며 3회 모임은 10일(월) 오후 8시 뉴저지소망교회에서 갖는다.

호산나전도대회는 6월 17일(월)부터 사흘간 한소망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행복한 갈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강사는 유관재 목사(성광침례교회 담임)이며 어린이대회 강사는 캐티김 전도사(한빛지구촌교회).

한편 뉴저지교협은 4개 한인봉사단체에 각각 1천 달러 씩 총 4천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뉴저지교협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27일 '제1회 후원기금마련 골프대회'를 가진 바 있다. 4개 봉사단체는 뉴저지 한인상록회(회장: 강대복),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시민참여센터(소장: 김동찬), CSO(Church Support Organization, 대표 정혜성 목사). (정리: 유원정 기자)

"그들을 만나면 심장이 뚝다"

YP3형제와 최명자 사모 조인콘서트

명품찬양콘서트를 이끄는 YP3형제와 영혼의 울림 찬양사역자 최명자 사모의 조인 콘서트가 지난 1일 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YP3형제는 "입술의 열매 중 가장 귀한 것은 축복하는 마음"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인사했다.

"그들을 만나면 심장이 뚝다"라는 주제로 열린 콘서트는 정관호

목사의 시작기도 후 오프닝 곡으로 '고해'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해 심장이 뚝다, 제시유 의 "Love is a many Splendored"에 이어 YP3형제가 "아침 안개", "나의 가는길" 등을 부른 후 최명자 사모가 "해가 서산에 기울네" 등을 불렀다.

이날 80년대, 90년대, 2000년 이후에 많이 불리지는 찬양이 있었으며 황영진 목사(선한목자교회, YP3 지도위원)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라!"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3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이 주최하는 '할렐루야 2013 대뉴욕복음화대회' 제 3차 준비기도회가 지난달 29일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 김종훈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장영준 목사(본지 발행인, 퀸즈장로교회 원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1부 예배는 허윤준 목사(영접분과) 인도로 기도 이광모 장로, 설교 장영준 목사, 특별통성기도, 광고 장경혜 목사, 축도 한재홍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영준 목사는 예배소서 5장 15-21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으로 할렐루야대회도 성령으로 무장하고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장 목사는 "성령은 말씀과 기도와 회개가 뒤따라야 한다"며 "주님의 뜻대로 행한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충만한 교회였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이날 이번 할렐루야대회 강사 양병희 목사가 말씀이 분명하고 성령이 충만한 강사라고 격려

하고 장소 폴든센터도 연합집회에 알맞은 장소라고 환영했다.

준비위원장 김수태 목사(뉴욕어린양교회 담임)는 지난 4월부터 케이블TV KCTS(사장 박용기 장로)를 통해 양병희 목사의 영상설교가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예배준비는 8-90% 됐다고 경과보고 했다. 또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3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실로암장로교회 심령부흥성회에서 장영준 목사(원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라"

뉴욕실로암장로교회 장영준 목사초청 심령부흥성회

뉴욕실로암장로교회(담임 김종덕 목사)가 장영준 목사(본지 발행인, 퀸즈장로교회 원로)를 초청 심령부흥성회를 가졌다.

김종덕 목사는 "마지막 시대에 보수적인 신앙을 지닌 장영준 목사님께 이번 집회를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열린 집회에서 장영준 목사는 첫날 저녁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요21:15-17), 둘째 날 "테오빌로여, 오순절을 통과하라"(행1:1-14)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장영준 목사는 셋째 날 주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행 20:17-32)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

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교회는 왜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셨는가?"라고 질문하고 "이는 교회는 마치 부모와 자녀 관계와 같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므로 삶의 목표를 교회 세우는 것에 두고 헌신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하신다"고 강조했다.

한편 둘째 날인 토요일 저녁에는 글로리아선교함창단이 말씀에 앞서 특별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뉴욕실로암장로교회는 지난해 12월 플러싱에서 베이사이드로 이전하고 교육관 건립 등 제 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유원정 기자)



YP3형제와 최명자 사모 조인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포스터가 곧 제작돼 각 언론을 통해 홍보하게 된다며 대회 참가인원 동원과 재정 후원을 당부했다.

어린이대회 준비위원장 김성은 목사는 영유아부와 초등부로 나눈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교사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교사오리엔테이션은 6월 중순 3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4차 준비기도회는 6월 10일(월) 오전 10시30분 뉴욕은혜교회(담임 이승재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아멘넷 10주년 기념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강사들과 관계자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성도"

아멘넷 창간10주년 기념집회, 강사 박성일·이규섭·노진산 목사

인터넷언론 아멘넷(USA.Amen.Net, 대표 이종철 집사)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지난 30일 저녁 기념 집회를 가졌다. 에벤에셀선교교회(공동담임 최창섭·이재홍 목사)에서 열린 집회의 강사로 박성일 목사(필라 기쁨의교회 담임)와 이규섭 목사(퀸즈한인교회 담임), 노진산 목사(믿음으로사는교회 담임)가

씨울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교회적으로는 ①미션 ②기도 ③커뮤니티 ④성경지식(공부)의 균형을 맞춰 조화롭게 나가려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는 최창섭 목사 사회로 에벤에셀선교교회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돼 뉴욕목사회 회장 최예식 목사의 기도 후, 김인식 목사/이주연 사모와 손영진 사모의 찬양과 말씀들이 이어졌다.

말씀1은 박성일 목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박 목사는 15년전 기쁨의교회 개척당시 '신학적 고민'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대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이규섭 목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2에서 필립 안시의 '교회 고민 나의 사랑' 책을 소개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가 하신 성육신의 일을 하나님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계속하는 신앙공동체"라고 정의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해답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천적 면에서 진정한 부흥은 ①회개의 역사와 ②성경적 사건의 재발 ③영적 성장과 성숙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건강한 교회는 ①평신도 세우기 ②영감있는 예배 ③전인격적 소그룹" 등을 언급하고 "일군이 되지 않으면 일감이 된다"는 말로 맺어 했다.

말씀2는 박성일 목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말씀3은 노진산 목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 제목의 강의에서 "성실함과 성공의 극을 피해야 한다"며, "성실주의로 무익하게 되고 성공주의로 무식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노 목사는 "건강한 목회자는 누구인가에 대해 ①영성 ②자기관리 ③감성적 문화적 이해력 ④결혼과 가정 ⑤리더십과 경영 5가지 테마연구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철 대표는 순서지에서 "다음 10년을 준비하며 지난 시간의 노하우, 생각, 시행착오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며 그동안 몰심양면으로 후원해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집회는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기독교서적·일반서적
신규주문서적을 포함한
모든 서적!!!!!!

SALE

잡지, CD 등 일부품목 제외

40%

+ TAX

문의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대마도

1만원에 보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세계민방에 환영한다!

에메랄드

1만원! 1000년 전의 비밀을 풀어주는 신비한 이야기!

3저 밥상

저렴하고 맛있는 밥상! 건강과 맛을 모두 잡는 밥상!

자연주의 태교 밥상

자연주의 태교! 건강한 태교를 위한 밥상!

벼룩시장

벼룩시장! 저가 상품과 희귀품목을 만나세요!

벼룩시장

벼룩시장! 저가 상품과 희귀품목을 만나세요!

배를 엮다

1원! 1000년 전의 비밀을 풀어주는 신비한 이야기!

권력의 조건

권력의 조건!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는 책!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Tongue Fu! 1원! 1000년 전의 비밀을 풀어주는 신비한 이야기!

나는 천국을 보았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천국의 비결을 알려주는 책!

멋진 인생을 위하여

멋진 인생을 위하여!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는 책!

벼룩시장

벼룩시장! 저가 상품과 희귀품목을 만나세요!

벼룩시장

벼룩시장! 저가 상품과 희귀품목을 만나세요!

베스트셀러
최신간 포함
40%
SALE

저희 한국서적에서는 책만 드리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제작하여 뉴욕으로 배송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 납품해 드립니다.

남가주 2개 신학교 1일 학위수여식

미주장신대 공태원 전도사 등 26명



월드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제33회 졸업 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6월 1일 오전 10시 남가주동신교회(담임 손병렬 목사)에서 열고 공태원 전도사 등 26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본교 학생처장 박종기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1부 감사예배는 서노회장 박화균 목사가 기도, LA노회장 이태호 목사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김상은 학우가 특송을 했다. 이어 해외한인장로회(KPCA) 증경총회장 박희민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딤후2: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사장 김인식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학위수여식은 교무처장 이승현 박사의 사회로 시작, 학사보고, 학위증서 수여, 시상으로 이어졌다. 이상명 총장이 격려사를 했으며, 기념품 증정, 감사의 시간, 교가제창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감사의 시간에서는 이날 학위를 수여받은 졸업생들이 학위과정을 이

수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가족들에게 학교측에서 준비한 꽃을 전달해 감동과 훈훈함을 전했다.

다음은 학위취득자 명단이다.
△M.Div.: 공태원, 김그레이스, 김명수, 김정민, 김재욱, 박광호, 박정숙, 소순일, 심삼열, 안성자, 오재성, 우장훈, 이상근, 이승재, 이원복, 이상욱, 임경은, 이두빈, 전제광 △B.A.: 박옥현, 서숙자, 신형, 양인희, 윤여근, 장영호, 정산

월드미션대학교 오위영 목사 등 43명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는 2013학년도 학위수여식을 1일 오후 1시 동양선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해 오위영 목사 등 43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임성진 부총장의 인도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은 김미진 학우가 축가를, 박형은 목사가 기도, 학사보고, 학위수여, 총장축화, 졸업생 감사 등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2013학년도 학위수여자 명단이다.

△M.Div.: 김병석, 권상욱, 박제영, 박정훈, 김문기, 이경연, 최세라, 고정석, 김도신, 백승구, 서원복, 박진규, 여현정, 윤성희, 이상필, 이은혜, 이현기, 정지은, 조수종, 조운선, 최현숙, 함윤경, 홍승미, 홍우규, 황창하 △MAM: 오위영, 박갑수, 이광식 △BABS: 강소라, 박혜미, 서태욱, 유일상, 이노을, 이태주, 한금자, 김동환, 김성준, 장유성, Psalm Kim △BAB: 승기선, 장하얀 △BACC: 김은하, 김용원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2013 플라목회자 세미나

플라한인총동문회(회장 박진구 목사)가 주최하고 플라한인M.Div.동문회(회장 박세현 목사)가 주관하는 '2013 플라 목회자 세미나'가 6월 10일(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랜드호텔에서 '하나님을 웃게 하는 강통교회: 어제, 오늘 & 내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강사는 박진구 목사(전주안디옥교회 2대 담임목사)이며 참가비는 20달러(점심포함). 사전등록 시 선착순 30명에 한해 10달러(이메일 등록요망 Church-ess3000@gmail.com)다. 플라신학교 재학생(M.A. & M.Div.)은 무료. ▲문의: (949)468-9960 총무 이선영 목사

창대교회 15주년 기념 경로잔치

설립15주년을 맞는 창대교회(담임 이준준 목사,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가 '사랑의 나눔공동체' 건립 오픈식과 함께 경로잔치를 마련한다. 일시는 6월 30일(주) 오후 5시. ▲문의: (909)388-2940, (213)458-1833



세계복음선교연합회(WEMA) 목사안수식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 8명 목사안수

세계복음선교연합회(총회장 윤경호 목사) 2013년 목사안수식이 지난 1일 오후 4시 동양선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열려 8명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홍주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목사안수식은 남중성 목사(부총회장)가 기도, 임동선 목사(증경총회장)가 "모범적 전도자 빌립"(행 8:26-39)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로서의 삶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격려했다. 이어 임성진 목사(고시위원)가 시취보고를, 윤기성 목사(증경총회장)가 서약, 안수례(기도 임동선 목사), 공포, 권면 및 축사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안수식은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목사안수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곽종혁, 김도신, 김문기, 박도용, 이우수, 이현기, 조수종, 황창하. (박준호 기자)



미주장신대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남가주든든교회 창립12주년 감사예배와 시무권사취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남가주든든교회 설립12주년 감사예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시무권사 7명 취임

남가주든든교회(담임 김현인 목사) 설립 12주년기념 감사예배 및 시무권사 취임식이 2일 오전 11시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1부 감사예배, 2부 취임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현인 목사 인도, 기도 이진도 장로, 말씀 김현인 목사, 권면 양승걸 목사, 황은영 목사로서 진행됐다.

이날 김현인 목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갈5:16-23)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12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행하

자"고 당부했다.

이어 양승걸 목사는 "장로도 많고 권사도 많은 시대이지만 오늘 임직 받는 권사들은 성경에 나타난 한나와 비비처럼 신실한 일꾼이 되라"고 권면했으며 황은영 목사는 "선임 권사들은 새로 취임한 임직자들을 앞에서 끌어주고 성도들은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주의 일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다.

이날 예식을 통해 정순희, 신명도, 홍귀인, 김선의, 김희원, 서미숙, 김정란 집사 등 7명이 시무권사로 취임했다.



VCS WEST '제 2회 LA 사랑의 무료개안수술캠프 감사의 밤' 행사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VCS WEST 'LA 사랑의 무료개안수술캠프 감사의 밤'

VCS WEST(비전케어서비스 미주서부)가 주최한 '제 2회 LA 사랑의 무료개안수술캠프 감사의 밤' 행사가 지난달 30일 용궁레스도랑에서 열려 무료 백내장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수술 받은 환우, VCS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번 캠프를 통해 77명의 환우들이 무료로 안검진을 받았으며, 이중 백내장이 시급한 환우 11명이 수술을 받았다. (기사제공: VCS WEST)



함께하는교회 설립 3주년 기념 부흥사경회에서 강사로 초청받은 이정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함께하는교회 설립3주년기념 부흥사경회

"돌파하는 믿음" 주제로 강사 이정현 목사 초청

함께하는교회(담임 조진석 목사)가 교회설립 3주년을 기념하는 부흥사경회를 지난달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가졌다. '돌파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나선서부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했다. 사경회는 조진석 목사 사회로 첫날 저녁 "하나님을 향한 믿음, 모든

것을 굴복시킨다"(삼상17:40-49), 둘째날 아침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가 보인다"(창12:1-4), 둘째날 저녁 "성령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롬8:26)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선포했다. (박준호 기자)



LA정신건강국주최 정신건강 세미나가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렸다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세미나 성황

LA카운티 정신건강국(LADMH)이 주최하는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개최됐다. 한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증진을 위해 종교계 지도자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안정영 LA카운티 정신건강서비스 코디

네이터가 강사로 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한인동포들을 위해 개인의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정신건강에 위협이 되는 각종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앞으로의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대안과 대처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적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예배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정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cc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The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신학교(원)

SEVIS I-20 FORM 발행

- 학위: 학사, 석사, 박사학위
-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 목회상담학, 심리학, 선교학, 세계문화학, 문예창작학
- 특전: 월-금 오전, 오후 Class,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 윌리엄캐리대학 복수학위 수여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TEL. (213)736-6500
FAX. (213)735-6504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동성애·차별금지법' 국민들에게 물어보니...

국민 10명 중 7명 "동성애는 비정상적 사랑"

국민 10명 중 7명은 동성애를 '비정상적 사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연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30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8%는 '비정상적 사랑'이라고 답했다. '정상적 사랑'이라고 답한 비율은 21.4%에 그쳤다.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답한 이들은 30대 이상에서 모두 절반을 넘었다(30대 66.0%, 40대 79.1%, 50대 85.2%, 60세 이상 88.5%). 그러나 20대에서는 '비정상적 사랑'(47.2%)과 '정상적 사랑'(45.8%)으로 보는 비율이 비슷했다. 이는 동성애자의 실상을 모

른 채 동경하거나, 상업적 매체의 동성애 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시급히 범사회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자라고 밝힌 자녀의 뜻을 인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거부한다'는 응답이 65.6%를 차지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6.1%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2.5%에 그쳤다.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반대여론이 두 배 가량 높았다. 응답자의 67.0%는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하는

의견은 32.1%였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74.6%)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변은 21.7%에 불과했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입법운동'에 대해서도 응답자 78.6%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성적지향(동성애)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52.3%)이 '찬성한다'는 의견(44.3%)보다 8.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항목에 비해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동성애 외의 다른 차별금지 규정에 대한 지지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 교회, 강연회 등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66.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안 차별사유 중 '동성애' 삭제 운동을 전개하는 교계 및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48.1%)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47.9%)이 비슷했다.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김승동 목사는 "동성애가 비정상적 사랑이라는 대답이 월등히 높음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건강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와 국회, 언론은 동성애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인터뷰를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다.

총회장 조일래 목사, 부총회장 이신웅 목사

기성 총회 107년차 회기 신임임원단 확정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 107년차 회기를 이끌어갈 신임 임원단이 확정됐다. 총회장에는 조일래 목사(인천 수정교회), 목사 부총회장에는 이신웅 목사(신길교회)가 선출됐다. 교단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던 우순태 총무 거취문제는 30일 오전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조일래 목사 (왼쪽), 이신웅 목사 (오른쪽)

29일 오후 2시 개최된 임원선거는 952명 중 939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막판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목사 부총회장에는 이신웅 목사가 유동선(춘천 중앙교회) 목사를 83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장로 부총회장은 정영선 장로(천호동교회)가 당선됐다. 이신웅 목사와 정영선 장로는 1차 투표에서 출석 대의원 3분2의 득표를 얻지 못했으나, 경쟁자였던 유동선 목사와 이진구(서대천교회) 장로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헌법연구위원회와 법제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헌법개정안들은 처리하지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일부 고성과 야유가 나오기도 했지만, 회의 시간을 준수하는 등 질서 속에 진행됐다.

30일 오전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우순태 총무의 거취 문제와 세례교인에 비례한 총회비 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유지재단 문제 등 교단 내 민감한 사항들이 논의될 예정이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헌법연구위원회와 법제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지방회 안건들에 대한 토론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총회 마지막날까지 열기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출간

한목협,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목회자, 오피니언리더 대상

한국인의 종교의식 수준을 읽을 수 있는 '한국기독교 분석리포트'(도서출판 URE·사진·이하 리포트)가 출간됐다. 이 책에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가 지난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비기독교인 1000명, 기독교인 1000명, 목회자 500명, 크리스천 오피니언리더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가 수록돼 있어 교회의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목협은 30일 서울 강남교회에서 한국기독교의 현황과 평가, 문제 진단 등을 담은 '한국기독교 분석리포트' 감사예배를 가졌다. 518쪽 분량의 책은 기독교인 및 비기독교인 조사, 목회자 생활의식 조사, 크리스천 여론 선도층 심층면접 조사, 주요 교단 통계조사, 부록

등 5개 대주제로 구성돼 있다. 기독교인 및 비기독교인 조사에선 한국인의 신앙의식, 기독교인의 교회생활, 출석교회 평가, 한국교회 위상 및 평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비종교인의 비신앙 이유와 출석교회 목회자 만족도, 교인들의 예배 양육 현금 전도 인식수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들어 있어 목회현장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 생활의식 조사에는 목회자 소득과 노후 준비, 목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이 수록돼 있다. 크리스천 여론 선도층 심층면접 조사에는 이들이 생각하는 한국교회 미래 키워드, 10년 후 전망, 재도약을 위한 과제 등이 수록됐으며, 부록에는 보고서 요약 및 목회 시사점 등이 담겼다.

오정현 목사, 박사학위 유지

포체스트롬대 심의 결과 통보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스트롬 대학이 오정현 목사의 박사학위를 취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표절 부분이 있지만 논문의 독창성과 학문 발전 기여도가 여전히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대신 오 목사는 표절 부분을 수정한 논문을 다시 제출하고, 인용 저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야 한다.

사람의교회는 3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스트롬 대학에서 받은 오 목사 논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람의교회가 공개한 포체스트롬 대학의 답변서에 따르면 포체스트롬 대학은 1998년 오 목사에게 수여한 박사학위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포체스트롬 대학은 신학부 교수진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오 목사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논문에 표절 부분이 있지만 논문의 독창성(still constitutes an original) 및 제자도에 대한 학문적 의미성과 기여도(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iscipline)가 여전히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표절 부분을 모두 삭제하더라도 논문의 독창성과 학문발전에 기여한 공헌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오 목사에겐 표절과 관련된 논문의 모든 부분을 수정한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한 참고문헌의 저자들 중 생존해 있는 저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한편 오 목사는 논문 표절 여부와 관련, 지난 3월 17일 자진해서 6개월 동안 설교를 중단하고 사례비의 30%를 받지 않고 있다.

교회에서 신천지 신도를 발견한다면?

이단 신천지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처 방법을 잘 몰라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교회 안에서 신천지 추수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전문가를 통해 들어봤다.

교회 안에 신천지 신도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될 경우 우선 제보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두고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을 관찰해 진짜 신천지 신도인지 여부를 파악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만일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다면 설블리 교인들에게 공개하지 말고 가족에게만 알린 뒤 당사자를 직접 만나 신천지 신도임을 인정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 회장 진용식 목사는 "신천지 신도의 70% 정도는 가족들 몰래 혼자서 근거를 제시하고 교회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내보내는 것이 좋다. 진 목사는

루라도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이단 상담소에서 신천지 교리에 대한 반증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내용이 잘못됐다는 재교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 목사는 "신천지는 정통 교회의 교리와 체계를 부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한번 배운 잘못된 교리는 쉽게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만큼 반드시 반증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단 상담소에서 성실히 교육을 받고 교인들 앞에서 신천지에 미혹됐던 경험을 스스로 말할 수 있

제보자 신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우선

회심 돕는 것 최선... 추수꾼 확인해도 부인하면 출교

신천지에 다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교인 중 신천지 신도를 발견한다면 가족 전체가 신천지에 빠진 것인지 아닌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또 "가족들에게 알려서 가족으로 하여금 회심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직접 불러서 일대일 면담을 하라"고 말했다. 진 목사는 "신천지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신천지인줄 모르고 교육받은 일이 있다고 대답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할 경우 그동안 수집한

"신천지 신도라는 정황이 파악됐음에도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집한 근거를 제시하고 교회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라"면서 "그 이후 다른 교인들에게 그간의 상황과 조치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만일 확인 절차와 근거없이 설블리 교회에서 내보내면 신천지 신도는 교회가 교회를 고소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천지 신도로 의심되는 사람이 현재 신천지에서 탈퇴했다고 밝혀도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할 경우 그동안 수집한

다른 교회는 더 이상 신천지 전력을 문제삼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 안에서 신천지 추수꾼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여러 명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 신천지 신도 전체를 상대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자칫 교회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진 목사는 "교회 안에 신천지 신도가 다수 포진해 있더라도 한 사람씩 접촉해 신천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잘못 사용되고 있는 예배용어

구분	이슈된 용어들	교회발전연구원 제안	구분	이슈된 용어들	교회발전연구원 제안
1	당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9	성가대	찬양대
2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기도합니다)	10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용불가(설교시)
3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11	열린 예배	열린 집회
4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들이, 교회의 권속들이	12	예배봉독	시용불가
5	대표기도	기도인도	13	준비찬송	시용불가, 예배 전 찬송
6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용불가	14	축제	전치(절기행사, 축하행사)
7	중보기도	중보적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15	주기기도	주님 가르쳐주시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8	사회자	인도자(예배시) (통합) 집례자(가성)		사도신경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자료:한국교회발전연구원)

모나리자 스킨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주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줄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솔루션	1회 \$100	10회 \$800
늘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정맥	1회 \$45	10회 \$400

(Special 기계)

*영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은혜의 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5)



유경옥 전도사
(화가, 수곡미술선교회 회장)

B. 골란 고원과 갈릴리 호수 주변

B-4 엔게브(Ein Gev, En Gev)

갈릴리 선상에 배를 드리기 위해 단에서 내려가던 중 망고꽃이 빨갛게 핀 곳과 그 꽃이 갈색으로 변해가는 들판을 지나, 유대인 첫 정착촌 엔게브에 들렀다. '물이 나오는 곳'이란 이름처럼 물도 있었고 주변에는 그리스-로마 유적지가 있다고 한다. BC103년 하스모니아 왕조의 아리스토텔로왕이 갈릴리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을 이곳에 이주시키면서 이스라엘에서 유대공동체가 생겨났다고 한다.

이러한 곳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 영국이 위임통치를 할 때 1937년 키브츠가 설립되면서 1948년 독립할 수 있는 저력을 기르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키브츠(Kibbutz)가 있어 현대 유대인의 역사를 바꿀 만한 생업과 공동체 의식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것이다.

'키브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신들의 각종 시설을 누리고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세계에 개방해 휴식과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호텔과 리조트, 캠프 시설을 갖추고 농업협동생활을 제공한다.

부지런하고 실질적인 농업기술과 민족공동체를 위한 학습으로 '엔게브 키브츠'는 설립자 자신이 이스라엘 시장을 역전한 것을 비

롯해 국방부장관, 국회의원, 키브츠운동연합회장 등을 배출해내는 산실이 되게 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와 견학을 하기도 한다.

키 크고 푸른 종려나무들이 줄 맞춰 있는 길을 나오니 멀리 왼쪽 베타로부터 오른쪽 밭으로 돼지들이 빠져 몰살했다는 거라사 동네를 보며 '베드로 물고기'를 파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유대인은 돼지로 제사도 지내지 않고 먹지도 않는



식당

데 왜 그 많은 돼지를 치게 됐을까. 그것은 데가볼리 지역 헬라인들의 제물로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익살스런 간판이 붙은 대형식당에서 기대했던 그 생선을 점심으로 먹었다. '베드로고기' 모양은 우리나라 먹도미 같았는데, 사진처럼 다른 소스나 장식은 없고 담백하게 튀겨서 나왔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라는 말씀보다는 맛이 있었다. 맛이 문제런가? 감회가 깊은

물고기 요리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처음으로 순종했을 때(눅 5:1-11) 잡은 물고기일까? 부활 후 상심으로 빈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잡힌(요21:1-11) 153마리의 물고기 종류였을까? 비록 상인들이 순례객의 신심을 이용해 이름을 붙여 파는 것에 불과할지라도 갈릴리에서 흔하게 잡히는 물고기만은 틀림이 없으니 예수님과 같이 먹었을 물고기, 웬지 목이 메어 왔는데, 가시 때문은 아니었다.

C. 갈릴리 호수 주변(Sea of Galilee)

C-1 갈릴리 호수 선상에 배

그리운 갈릴리 바다 냄새를 맡으며 순례단은 배에 올랐다. 두 척의 배를 하나로 묶은 것은 인원이 많아 나누어 타고 함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였다. 언뜻 램브란트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에서 돛단배가 폭풍우로 인해 기우는 장면이 스쳐갔으나 더 없이 맑고 따뜻한 날씨라 이어진 배와 배 사이를 사뿐히 밟고 첫 번째 배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아름답고 거룩하게 올려 피지는 특별 4중창으로 모두는 고요한 바다가 됐고 권태진 목사님은 마4:18-25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조금 띄우고..." 무리를 향해 설교하셨지만 우리는 같이 배에 탔으므로 똑같지 않았지만 비슷한 상황이며서 웬지 성경 속으로 들어온 느낌.

선상설교를 하신 권태진 목사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지으신 즉흥시("갈릴리 호수")를 소개했다. "행복한 만남/호흡하는 갈릴리/일평이는 물결 맘/가리던 배에 신고/주님을 생각하니/물 위로 걸어오셔서/두려움 쫓아주시니/예수님 음성을 듣습니다/내니 두려워

말라"/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빈 배 인생 만선의 인생으로/실패가 성공으로/임시성 굴레 벗고/영원 천국 소유하라/나의 사랑 갈릴리여/행복을 길잡게 하고/성지의



태극기와 이스라엘기가 나란히 게양된 선상

추억 담아주는/아름다운 곳이어" 아마도 순례단 각자 각자도 신앙고백과 관련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사역을 한 제자들이라도 된 양 성경속의 일들이 현실로 되살아남을 체험하지 않았을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마4:18) 이 바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마8:26)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던 곳, 바다 위를 걸으라하신 주님(마14:22-33),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라고 명하신 주님, 부활하신 후 이곳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라하셨던 주님(요21장),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러면 내양을 먹이고 치라 하신 것,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이 바다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그곳을 넘어온 바람과 바다의 바람이 만나면서 돌풍이 되어 불어 닥치면 갑자기 풍랑이 거세져 또 다른 성난 바다가 된다는 것이나 해수면이 낮다는 특성으로 인해 유명한 것과는 차별화된 영적 가치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음을 재인식하며 새로운 사명의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예배가 끝난 후 청학동 청년처럼 꼬지머리를 한 베타사람 그리스-유대인 청년이 정확한 발음으로

한국 찬송가를 불렀다. 이 배는 메시아니즘들이 운영하는데 유대인들의 방해가 많아 크리스천들이 애용해줘야 운영이 된다고 한다. 사방이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인 갈릴리 호수는 대지구대(대협곡) 안에 있기 때문에 수면이 해면보다 낮다. 이스라엘이 지나고 있는 이 요르단 지구대는 길이 650Km, 너비 15-20Km로 홍해의 아카바만에서 시작해 사해를 지난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 홍해 지구대를 거쳐 동 아프리카 지구대와 이어진다고 한다. 지구대의 가장 낮은 수면은 -417m로 사해이며 해면보다 -209m 낮은 갈릴리 호수는 깊이가 50m다. 분명 호수지만 둘레가 약 53Km, 남북으로 21Km, 동서로 약 11Km, 면적이



베드로 물고기

약 166평방Km로 크기 때문에 또한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기 때문에 '갈릴리바다'라고도 부른다. 구약에선 처음에 호수 서편을 말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호수자체의 이름으로 쓰이게 됐다.

갈릴리란 이름은 'region', 'district', 'ring' 등의 뜻이 있다. 상부 갈릴리 지역은 해발 600m 이상을, 하부 갈릴리는 600m이하까지 내려가는 지형의 다른 명칭이다.

갈릴리는 납달리, 아셀, 스블론, 잇사갈, 단 지파 등의 땅이며(수19장, 사18:27) 경계는 북서로는 두로와 시돈, 북동으로는 훌레계곡과 갈릴리 호수, 요단계곡(데가볼리), 남으로 사마리아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방인이 많이 들어와 '이방인의 갈릴리'(시9:1, 마4:15)라는 별명도 얻었다.

또한 이름이 다양한데 '긴네렛'/게네사렛(민34:11, 신3:17, 수11:2; 19:35, 마14:34, 눅5:1)은 역시 동해 이름을 딴 것으로 갈릴리호수 서북쪽 긴네렛은 게네사렛 평원이 시작되는 부근 갈릴리호수 중앙의 왼쪽 윗부분에 해당되는 동해다. 해변을 따라 왼쪽 아래 게네사렛 평원이 끝나는 쪽이 막달라다. 그러나 긴네렛과 게네사렛은 호수로 말할 때는 게네사렛 속의 긴네렛이기 때문에 같이 쓰인다. 또는 구약시대의 긴네렛이 마카비 혁명이 시작된 BC1세기 이후에는 게네사렛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모두 게네사렛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디베라는(요6:1; 21:1) 헤롯 안티파스가 AD17년에 세운 도시로서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다. 로마황제 티베리우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부른 도시이름이 바다에도 붙여진 것으로 호수 중앙에서 왼쪽 약간 아래 동해다. 게네사렛(눅5:1) 때로 명칭 없이 '큰 바다', '바다', '호수가'로 불리기도 했다.

이번 성지순례의 여러 목적 중 개인적인 설치작품전과 사진촬영이 있어 갈릴리에서 작품 사진을 많이 찍었다.

출항 전 게양됐던 태극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이며 춤추는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제 2고향인 가버나움에 배가 닿았다. 우리는 긴 나무데크를 걸어 들어갔다. 배를 타기 위해 이미 기다려 서있던 중국 순례단이 우리를 보자 "강남스타일"을 흉내 내며 손짓했다. (다음호에 계속)



이슬람 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동남아 종교박해 갈수록 심각 최근 인도기독교협의회 총무 존 다얄은 동남아시아와 이슬람교 국가인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소수 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각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아 국가인 인도, 파키스탄, 부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

디브는 기독교와 소수종교를 박해하는 나라다. 인구 20만 명의 섬나라 몰디브는 기독교인들이 전무한 무서운 나라이며, 인도 또한 기독교와 이슬람교도들을 동시에 박해하고 있다. 특히 재개종범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강제로 힌두교로 재개종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 파

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기독교인들과 힌두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며,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 네팔, 부탄은 기독교 신자들과 이슬람교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인도의 반개종범은 기독교를, 파키스탄의 신성모독죄는 기독교 신자들을 겨냥한다. 인도 수상 소니아 간디는 2011년 구자라트주에서 발생한 반이슬람교도 폭동과 2008년 오리사주에서 발생한 반기독교 폭동을 계기로 종교대상 폭력 금지법을 제정했으나 효과가 없다.

스리랑카에서 반이슬람 반기독교

교 대모

동남아국가들에서 종교충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스리랑카에서 한 젊은 지도층 승려가 분신 자살하였다. 무슬림들이 할랄 식품 명분으로 짐승을 도살하는데다 기독교회가 불교도들을 상대로 기독교 개종시키는 것에 항의 분신자 살한 것이다. 이 일 이후, 많은 불교도들이 두 종교를 대상으로 대모를 일으킨 것이다. 불교연맹은 두 종교를 상대로 동물 살해와 개종을 금지하는 법을 정부에 신청 중이다.

살인범이 순교자로 둔갑?(이란)

영국 BBC 취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란에서 한 남자가 재판관을 살인한 혐의로 교수형을 당했는데 당시 촬영한 사진이 웃으며 순교하는 것으로 둔갑했다고 한다. 순교자들과 고난당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때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겠다.

이스라엘에서 핍박받는 유대교 소수종파인들

영국 이코노미스트(5월18일자)에 의하면 '카라이테'라는 유대 소수종파인들은 지금도 보수주의자들이 쓰는 '해골 모자'와 성구를 넣

은 양피지 가죽 상자나 유대인들이 지키는 일부 축제를 거부한다고 한다. 이들은 숫자적으로 볼 때 6백만 유대인 중 1%에 해당한다. 아직도 안식일에는 불도 켜지 말라는 성경을 그대로 따라서 금요일 저녁부터는 촛불조차 켜지 않는다.

카라이트는 히브리어로 성경의 추종자들을 의미한다(히브리어 카라임). 이 이단은 8세기 경 이라크의 유대인 아난이 창시자인데, 사두개파, 에세네파, 심지어 이슬람교로부터도 일부 교리와 의식을 차용했다.



변화하는 글로벌 선교

소아시아에서 1세대 선교사로 26년간 사역했고 현재 GMS 선교훈련원장으로 미래의 한국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는 조용성 선교사의 글로벌 선교의 이론과 현장과 전략을 담은 책이다. 오늘날 선교의 이슈, 동향, 전략을 이슬람, 서구 기독교와 관계하여 예리하게 파악하고 균형있게 선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용성 지음 / 536면 / 20,000원 / 신국판 양장



사도행전 주해

프론티어스(Frontiers) 창설자이자 총대표인 그렉 리빙스턴의 사도행전 주해서. 타종교 지역,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들어가 개척하는 사역자를 위해 성경의 능력과 적용, 자비량 사역, 신학의 기초, 박해 등에 대해 사도행전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어서 선교 사역자들에게 제자훈련 교재로서 소그룹으로 토의하기에도 훌륭한 책이다. 그렉 리빙스턴 지음 / 김동현, 김수용, 이현주, 전병희 공역 / 536면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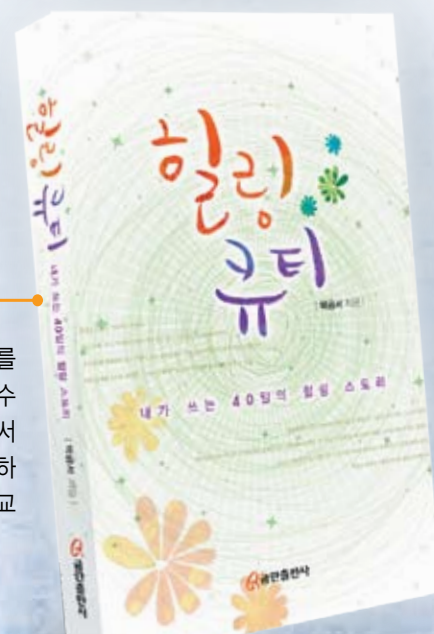
사자성어로 된 복음행전

성경에서 자주 대하는 구절을 사자성어(四字成語)화하여 해석을 달고, 관련 성경구절을 기록하여 성경 구절을 한자로 친숙하고 흥미롭게 익힐 수 있도록 새롭게 시도한 책이다. 성경순 편집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으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한자를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김인식 편저 / 312면 / 13,000원



힐링 큐티

힐링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되어야 한다. 힐링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인데 우리의 진정한 힐링 멘토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책은 매일 한 테마씩 40일 동안 큐티를 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얻도록 구성되었으며, 스스로 힐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하며, 구역공과나 팀모임 교재로도 좋지만 혼자서 사용하기에도 충분하다. 박공서 지음 / 342면 / 12,000원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2 사모의 인격 가꾸기(3)

사모의 인격이 목회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큼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갖추어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잠시 사용하고 마친 사사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탈락시킨 사사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음에 가서 끝까지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모가 되기 싫어서 먼저 끝까지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모가 되기 싫어서 먼저 끝까지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모가 되기 싫어서 먼저 끝까지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격은 노력으로 되지 않아...사모는 '은혜'로 되는 것 그리스도로 인해 입혀진 의만이 참된 의임을 깨달아야

월을 지내게 하시고 마침내 성숙한 사모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모들의 인격 가꾸기는 다른 종교나 요가나 명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는 보통여인과는 다른 특징 있는 여성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목적을 놓고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는 은혜 받은 자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이므로 인격성숙도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대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할 때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는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육신을 입은 마리아의 몸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기로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로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의 인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모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모들은 사모가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훈련을 합니다. 필자도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를 2시간씩 하면서 사모가 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5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동안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목회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인격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고전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정체를 아무리 연습하고 훈련을 해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튀어나오는 죄성을 볼 때 사랑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절감하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조금이라도 단련된 성품이 괜찮다고 인정하는 순간 넘어지고 실수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사모의 자리에서 견딜 수 없으니 떠났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선수가 될 줄 알았습니다. 인내하는 것도 명수가 될 줄 알았고, 용서는 그냥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운 사람이 생기고 여전히 참기가 어려워지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남이 사역을 잘하는 것을 보

면 은근히 시샘이 납니다. 어느 누구라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하면 견딜 수 없어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0년 50년씩 연습하고 뒀고 달은 기술들을 발표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스타킹에서 회를 뜨는 스타킹의 기술을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의 힘으로 노력하면 저렇게 대단한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목회현장에서는 왜 그렇게도 더러운 인격이 튀어나오는지요?

날마다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며 매일 심방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상담하며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사모라면 그의 인격은 예수님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될 줄 압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자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었고 바울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후부터는 엄청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를 향한 열정이 끊어지지 않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역초기에 고백하기를 "나는 만족되지 못하여 난 팔사동"이라고 했습니다. 열3:8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 말년에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모두가 성자가 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백은 죄인의 괴수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하는 사모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모든 사역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자녀들에게만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하는지 잘 압니다. 교인들 앞에서 하는 행동과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행동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한없이 일어나는 욕심은 꺾이지 않거나 딸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음을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이 욕심은 크리스천의 향기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인격의 더러운 냄새로 인해 은혜는 커녕 오히려 시샘거리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떨어지지 않는 질긴 꺾 따지를 때려낼 수 있는 힘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풀거풀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해집니다. 십자가는 구원 얻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로움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빌3:8-9)

바울은 또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이라" 자신의 노력으로 올릴 지킨 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철저히 알게 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자기의 자랑거리가 모두 배설물처럼 여겨진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스스로 행했던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리스도로 인해 아첨의 의만이 참된 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설물이라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배설물을 버린 후에 후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사모들의 고백이 모두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13:4-7).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요12:27-30)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음을 고백하십니다. 항상 아버지와 교통하셨던 분이시기에 이 고백은 놀랍기만 합니다. 영혼의 위기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은 우리에게 큰 지혜를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친 영혼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연관 엮으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이 완성됨으로 하나님께서 큰 영

광이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때문에 맞게 되었던 절대절망의 영혼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통해 극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쁜 날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슬픈 날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혼을 뒤흔들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화 내게로 이끌겠노라(요12:31-33)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이 내포되었습니다. 첫번째는 분리(Separation)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을 뿐더러 생각이 허망해져 미련한 마음으로 스스로 지혜있다 여기는 구제불능의 존재들이었습니다(롬1:21-22). 이런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초래했습니다. 두번

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강제적으로 그의 편으로 우리를 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이끄심(끌림)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있어서 우리 자신을 꼼짝달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 이 세상에 높이 들리워졌을 때 우리가 그의 사람으로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이끌어주심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수 이 인자는 누구냐?(요12:34)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자신을 칭하신 '인자'라는 칭호는 그분의 실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인자"는 단순한 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7:13 "그 사람의 아들"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가 나타납니다. 종말에 구름과 함께 천사들을 동반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로 나타나는 신적 존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만유의 하나님이며 2위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이 있기 전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며 세상 끝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우리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목 빛되신 예수님(요12:35-36)

인자가 누구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빛을 이야기하십니다. 동문서답과 같은 예수님의 이 대답은 빛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빛은 고대근동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시27).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시38).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빛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또한 이 빛은 우리의 마음

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조명(illumination)이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자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의 지식에 깨어났습니다. 빛이 오는 또 하나의 이미지는 대적(against)입니다. 무지를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고 악을 거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통해 주로 맞이하는 순간 주님의 빛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와 무지, 악의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금 슬픈 자기 사랑(요12:36-43)

예수님께서 빛 되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여러 모양들이 있지만 그것의 근원은 아담이 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보다 더 영광 받는 존재가 앞 나타나면 참지 못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의 탄생을 미리 예고 받았던 이스라엘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나

를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조명(illumination)이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자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의 지식에 깨어났습니다. 빛이 오는 또 하나의 이미지는 대적(against)입니다. 무지를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고 악을 거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통해 주로 맞이하는 순간 주님의 빛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와 무지, 악의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토 자신의 영광을 사랑한 사람들(요12:42-43)

요한은 관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에 자신의 믿음을 밝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본혜퍼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싸구려 은혜(Cheap grace)로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제자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 계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없는 은혜가 싸구려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주를 고백하지 못하는 관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싸구려로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나의 영광이 높아질수록, 나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나의 업적이 사람들로 인해 칭찬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싸구려로 취급됩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수록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은 더욱 높아집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곡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2-490-7000, Fax. (0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62)264-3181, Fax. (062)222-4834 500-170 광경교회 북구 문암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주일4부예배: 오후 8:12:2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로주목) VIA DEI QUINTILI 3-30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세) Tel. (82)2-440-9000, Fax. (9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622-3 (158-053)	새이렌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철도인들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부예배: 오전 5: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신림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08-996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713-26호
수령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66, 456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정동 1418-1, (612-824)	수평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평화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32-2341-3, 서울 (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37번지	시온성교회 담임목사: 김경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림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713-26호	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산구 세곡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o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56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101(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북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31)82-2-927-5511 서울 용산구 세곡동 146-7
밴쿠버빌라미아교회 담임목사: 임진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성령강림: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8:00/9:00/10:00 금요기도회: 새벽 5:00, 새벽 6:00 금요일 오후 7:30 금요일 새벽 7:30 www.pccov.org Tel. (604)564-5780, Fax. (604)56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주일3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8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toral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1253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저녁 7:00 주일3부예배: 저녁 9:00 주일4부예배: 저녁 10:30 주일5부예배: 저녁 11:40 수,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6:00 (1, 2, 3, 부 스페니쉬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rn@hanrn.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 38회
필라안디옥교회 담임 호성기 목사

총회장 인/터/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 37회
오렌지 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 엄영민 목사

“선교적 교단 방향성 더욱 확고히...
공익롭고 은혜로운 버팀목 총회 되도록”

-총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소감 한 마디.
참으로 부족한 종을 총회장으로 교단을 대표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모든 총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책을 맡아 한편 어깨가 무겁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난 1년간 총회장을 보필하면서 총회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해외한인장로회라는 교단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 시대에 중요한 교단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해외한인장로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지난 23년 동안은 지역교회 목회와 선교에 온 힘을 쏟았는데 이제 주어진 1년 동안은 총회의 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기를 원한다.



리고 파송되어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 믿는다. 그러므로 사람을 길러 성도들이 목회의 대상만 되던 수동적이고 철 지난 목회철학을 버리고 성도들이 목회의 주체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회의 철학이고 목회의 비전이다.

-한국 교회와 세계 한인 교회의 나아갈 방향
이미 표현한 대로 한국교회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는 이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믿는다. 교회성장이 목적이 되었고 큰 교회만이 성공한 교회라는 지극히 세속화된 교회상의 이미지를 벗어나고 첫째, 교회의 존재이유는 선

만 명이 우리의 섬길 교구임을 선포한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흩어져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어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지역교회들은 흩어져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인 교단, 선교사적인 목회자와 리더들이 되어 선교

-총회를 이끌어 가실 방향과 38회 총회가 특별히 할 사역 및 비전을 소개한다면.

교회 존재이유는 선교...교회 본질 회복해야
다민족 품으며 함께 사는 천국공동체 이 땅에서도 실현

우선 대내적으로는 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회원교회와 리더들이 해외한인장로회라는 총회의 회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자긍심이 감절이 될 수 있도록 회원교회와 리더들을 사랑하겠다. 또 총회가 교회들과 리더들의 든든한 버팀목과 그늘이 될 수 있도록 공익롭고 은혜로운 총회가 되는데 계속 힘을 다하겠다. 사심이 없고 사육이 없는 교단의 본질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임원들과 협력하여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젊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총회, 즉 다음세대를 품고 아우르고 발전시키는 총회가 되도록 내실을 기하여 갈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총회가 지향해온 선교적인 교단의 방향성을 더욱 확고히 하여 나가는 것이 총회장으로서의 비전이다. '해외한인장로회'라는 교단 이름이 교단의 비전을 확실히 제시하고 있다. 즉 우리 교단은 전 세계 175개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750

적인 교단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이번 총회에 일본에 있는 44개 교회가 교단에 가입한 것이 더할 수 없는 좋은 이 교단이 추구하는 비전의 열매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되어 이 비전을 실현하여 나갈 것이다.
-목사님의 목회철학과 비전은 무엇인지.
지역교회의 목회자로서도 같은 목회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까지 사역해왔다. 즉 교회의 존재이유는 선교이다. 총회의 존재이유도 선교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훈련받고 양육받아 세상 속에 나가서 영혼을 구령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다. 교회가 크고 작으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이다.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길

교에 있다는 교회의 본질회복을 가져와야 한다고 믿는다. 한국교회도 이제는 솔하게 밀려오는 다민족들을 '단일민족 정체성'으로 말미암는 지극히 인종차별주의적인 목회에서 벗어나 다민족을 품는 선교적인 교회로 거듭나야 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는 각 곳에 흩어져 왔는데도 그 흩어져 온 곳이 선교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국 사람끼리만 모여서 한국 음식 먹고 한국식으로만 살아가는 한인 게토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열방을 품고 흩어져 있는 곳에서 다민족을 품으며 함께 살아가는 천국 공동체의 모습을 이 땅에서 실현하여가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선교적이 못한 교회는 한 국에 있던 해외에 있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선교가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과 도구가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분명한 성서신학 위에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유원정 기자)

무거운 책임감... '새로운 시작' 에 걸맞는 총회되도록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LA 웨스틴 호텔에서 개최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37회 총회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로 이번 총회는 많은 진통을 겪고 진행돼 그 어느 때보다 신임 총회장의 임무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 엄영민 목사와의 짧은 인터뷰를 가졌다.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교육과 훈련의 장이 돼야하지 않을까? 특히 지라나는 2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최선의 신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애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 이 땅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요섭과 다니엘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총회장으로 당선된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오.
부족한 사람이 어려울 때 총회를 섬기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주제에 걸맞은 회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장할 수 있었고 뜨거운 예배와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통해 이민 사회와 교회를 섬기는 수 많은 일꾼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열린 교회, 주는 교회, 키우는 교회'를 모토로 하고 있으며 뿌리 깊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만 거기에

이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저희 목회방향이며 교회의 비전입니다.

-한국교회와 세계 한인교회

'열린 교회, 주는 교회, 키우는 교회' 모토로 목회
소금과 빛 모습 회복하고 디아스포라교회로 선교사명 다해야

-총회의 방향 및 비전은 무엇입니까?
개혁교회의 뿌리를 가진 교단의 전통을 계승하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참신함을 겸비한 총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실망과 비판이 큰 이때에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밖에서도 존경받는 교회와 목회자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목회철학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놀랍도록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누리며 살기 바라는 것이 저의 목회 비전이며 철학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32년 동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예배드림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부흥

머물지 않고 새 시대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달리는 '열린교회'입니다. 미래를 향해 열렸고 성령의 역사를 향해 열렸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려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날 가깝게는 많은 이웃들에게 전도했고 멀게는 중앙아시아 최초의 교회와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현재는 카작스탄과 케냐에 풀타임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30여 곳과 협력선교를 하고 있고 10년 내에 100여 곳 이상으로 늘려갈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위와 세계를 향해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모토는 '키우는 교회'지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일 뿐만

가 나아가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모습을 회복하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디아스포라교회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하루 속히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가장 성스러워야 할 총회가 부끄러운 현상으로 변했던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많고 총회장으로서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총회를 대표하여 정중한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성숙하고 존경받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성자 기자)



담임 목사 청빙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에덴장로교회(PCUSA)는 36년의 역사와 자체성전을 소유한 준비된 교회로써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 1. PCUSA 교단소속 또는 본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분
- 2. 본교단이 인정하는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하신분
- 3.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2중언어(한/영) 능통하신분
- 4. 목회경력 10년이상 이신분
- 5. 담임목사 5년 임기제(공동의회 과반수찬성으로 연임가능)

■ 제출서류

- 1. 이력서(한/영 각1부) 및 가족사진
- 2. 목회 소견서
- 3. 본인, 사모, 가족소개서
- 4. 최근 6개월내 설교 동영상(CD or DVD)
- 5. 대학 및 신학대학 졸업 증명서
- 6. 목사 안수 증명서

마감 : 2013년 6월 15일 (이메일이 아닌 우편으로만 제출받습니다.)

우편 제출처 : Eden Presbyterian Church / 1053 6th Ave. Honolulu, HI 96816

문의 : 청빙 위원장 이영배 장로 (daniellee1028@gmail.com)

